

사회주의 역사 읽기

# 마오, 마르크스, 정치경제학 그리고 중국혁명: 훌륭한 질문, 서투른 대답

리처드 레비

(번역: 김성균 정책교육국장)

## 역자 해설

이 글은 아리프 딜릭(Arif Dirlik), 폴 힐리(Paul Healy), 닉 나이트(Nick Knight) 등 중국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저술한 저작을 엮어 출간한 책, *Critical Perspectives on Mao Zedong's Thought* (Humanities Press, 1997)에 수록된 글이다. 글의 저자인 리처드 레비(Richard Levy)는 마오쩌둥의 정치경제학 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자는 알튀세르, 발리바르, 베틀렘의 연구를 참고하며 마오의 문제들이 갖는 의의와 한계에 관해 논한다. 그리고 저자는 마오의 문제들이 이 글의 부제처럼 “훌륭한 질문, 서투른 대답”이었다고 결론짓는다.

다만 글에서 저자는 빠르게 공산주의로 이행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신민주주의 초기종식,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 설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평가에 대해

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3년 여름호와 이번 호에 각각 수록된 이아림, 「환상을 버리고 마오와 중국혁명을 이해하기 위하여」 전편과 후편을 참고할 수 있다. 이아림의 글은 신민주주의는 왜 조기에 종결되었는지, 그 후과는 어떠한지, 대약진 운동은 왜 실패했는지와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다.

또, 본 글의 저자도 언급하고 있는 상하이학과 정치경제학 연구의 성과와 한계와 관련해서는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3년 여름호에 수록된 임지섭 번역, 피어 뮐러 크리스텐센, 요르겐 델만 저, 「마오쩌둥과 상하이학파의 과도기 사회론」을 참고할 수 있다. 역자는 상하이학파의 이론이 순전히 독창적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소련에서 있었던 상품화폐관계/가치법칙과 관련한 논쟁이 전개되었던 사실을 언급한다. 또한, (레비도 본문에서 지적하듯) 상하이학파는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관한 실천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 정확한 개념 규정과 판단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 약점이라고 비판한다. 참고자료로 제시한 글과 함께 본 글을 읽는다면 마오주의에 대한 저자의 평가를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 안은 원문의 설명이며, [] 안은 역자가 추가한 설명이다. 굵게 처리된 부분은 모두 원문에서 기울임체로 강조된 부분이다.

\* 독자의 편의를 위해, 원문에 영문으로 표기된 중국어 저작은 필요한 경우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 \* \*

마오쩌둥은 마르크스주의자였다. [그를 마르크스주의자로 보는 게 적절한지] 비록 오랫동안 이어진 논쟁이 있었지만, 나는 마오를 마르크스주의자로 보는 것이 그의 정치경제학 사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핵심이라고 주장할 것이다.<sup>1</sup> 정치경제학 이론가이자 혁명가로서 마오의 성공과 실패를 의미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해야만 하고, 또 마오가 해석한 마르크스주의를 이해해야만 한다. 여기서 [마오가 해석한 마르크스주의란] 다른 여러 역사적 해석과 그 구현과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살아 숨쉬는 과학으로서, 사회적 발전을 분석하고, [마르크스주의자가 현실에] 개입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과 국면을 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 예를 들어, 다음 저자들의 글을 보라. Benjamin Schwartz, Stuart Schram, Nick Knight, Maurice Meisner, Brantley Womack, John Gurley, Jack Gray, Steve S. K. Chin. 그리고 특히 *Modern China* vol.2, No.4(Oct 1976)와 vol.3, No.1(Jan 1977), vol.3, No.4(Jan 1977)의 "Symposium on Mao and Marx"을 보라. 이 논의의 훌륭한 요약물 위해서는 Nick Knight, "The Marxism of Mao Zedong: Empiricism and Discourse in the Field of Mao Studies", *The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AJCA) 16 (July 1986), p. 8을 보라. [1976-77년] 이러한 논쟁이 벌어진 뒤, 마오가 정치경제학적 주제를 다룰 때 마르크스주의적 범주에 입각한 일관된 틀이 있었다는 추가적인 증거가 나왔다. 예를 들어, 대약진 시기 초기 기간 그의 연설을 번역한 [다음의 저작이다.] Roderick MacFarquhar, Timothy Cheek, Eugene Wu (eds.), *The Secret Speeches of Chairman Mao From the Hundred Flowers to the Great Leap Forwar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초기 마오의 마르크스주의를 어떻게 읽었는가에 관한 여타 추가 정보나, 마오의 사상에서 마르크스주의적 요소에 관한 연구는 다음 글들이 다룬다. Nick Knight, "Mao Zedong's Thought and Chinese Marxism: Recent Documents and Interpretations,"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BCAS) 25, 2 (April-June 1993), pp. 54-63. 그리고 Nick Knight, "Mao Studies in China: A Review of Research on Mao Zedong Thought", *CCP Research Newsletter* 2 (Spring 1989), pp. 13-16.

이 글의 첫 번째 절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에 관한 여러 상이한 해석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상이한 해석이 정치경제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대조한다. 두 번째 절은 마오의 마르크스주의 해석에서 비롯한 그의 정치경제학적 사상을 분석한다.

내 논증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먼저, 해방 후 정치경제학에 관한 마오의 초점은 새로운 사회구성체 구조가 창출한 문제에 좌우됐다. 그리고 사회구성체의 발전에 관한 마오의 분석은 어떤 이론적 기초 구조 또는 문제틀(problematic)에 의해 한결같이 영향을 받았고, 이는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그의 정교하고 일관성 있는 독해에 기초했다.<sup>2</sup> 둘째로,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마오의 해석은 경제가 최종심급에서 궁극적인 결정요인이며, 따라서 사회구성체는 모순들이 무작위하게 융합된 혼합물(amalgamation)이 아니고, 경제에 의해 구조가 형성된 통합체(whole)라고 보았다. 이처럼 경제는 계급투쟁이 벌어질 지형을 결정함으로써 이런 모순들의 구조를 구성한다. 따라서, 경제에 의해 사회구성체

2 문제틀이란 이론적 기초구조(theoretical framework)를 말하는데, 즉 그것은 기본 개념들 간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그 기초구조 내에서 각 개념이 차지하는 위치나 기능에 따라 그 개념의 성격을 결정한다. 개념들은 오로지 문제틀이라는 맥락에서만 적절히, 완전히 이해될 수 있다. 즉, 근본적으로 상이한 문제틀은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개념들에 상이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틀은 특정한 가시(可視) 영역를 뜻하며,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을 관찰하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 밖에 있는 것을 필연적으로 배제한다. 그에 따라, 문제틀의 변화는 관찰과 사고가 일어나는 전 과정을 질적으로 변형한다. 문제틀 개념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알튀세르와 발리바르의 저작을 보라. 특히 *Reading Capital*, London: Verso, 1979, (국역: 두레)와 Paul Healy의 관련된 서평, "Reading the Mao Texts: The Question of Epistemolog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JCA)* 20, 3 (1990), pp. 348-49, 그리고 Nick Knight, "Empiricism and Discourse", pp. 11-12을 보라. 마오의 저작에서 "티파"[提法, 제법]라는 단어는 보통 [영어로] framework(기초구조), formulation(계통적 서술), presentation(설명)으로 번역했는데, problematic(문제틀)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의 발전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러므로 지배적인 모순도 특정 시대, 특정 사회구성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셋째, 개인으로서 마오의 사상적 발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현상으로서 마오의 사상을 평가하는 일도 반드시 해야한다. 이것은 마오의 사상뿐만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즉 [마오의 사상에 따라] 실행된 정책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이러한 정책에 따라 강화되거나 제약을 받은 사회세력이 누구였느냐는 측면에서 [마오의 사상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것은 네 번째 요소로 이어진다. 즉, 정치경제학에 관한 마오의 문제들에 엄존했던 취약성이 그가 사망할 당시의 정책이나 사회구성체에 반영되었다.

## 1. 마오와 마르크스주의 문제들

마오의 정치경제학 사상은 공산주의 운동사, 그리고 중국혁명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여러 기존 해석을 깨뜨렸고, 사회주의적 변혁의 성격에 관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오의 사상은 마르크스주의의 두 가지 일반적인 해석과 실천을 거부했다. 즉 “인간주의적”(humanist) 해석과 변증법적 유물론에 관한 스탈린적, 경제주의적 해석.

마르크스주의 내부의 **인간주의적 전통**은 대부분 헤겔에서 유래했다. 이는 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개인으로서 “인간”이라는 신화에 기초를 둔다. 사회로부터 분리된 “인간”을 관찰하면서, 인간주의적 문제들은 사회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본질이 존재한다는 것이 마치 당연한 사실인 듯 가정한다. [인간주의적 전통은] 이처럼 영원하고 무계급적이며

이상적인 인간 본성이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주의자가 지닌 본성이라고 일반적으로 간주한다. 비록 이런 가정은 확실히 도전받을 수 있지만 말이다. 인간주의의 문제들은 “인민”의 “자연권”이란 계급과 무관하며, 다른 개인들 혹은 통합체(whole)로서 사회의 간섭을 받지 않는 특정한 행위영역에 적용되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인간 본성은 사회를 초월하기 때문에, 각각의 인격은 [사회라는] 통합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나”의 관점에서 사회를 인식할 타고난 권리를 가진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인간주의적 전통의 상징은 “소외” 개념이다. 루이 알튀세르와 여타 유럽 마르크스주의자들에 따르면, 1845년에서 1857년 사이 마르크스는 그의 초기 저작에 있던 인간주의적 문제들과 결정적으로, 또는 “인식론적으로” 단절하고 유물론적 문제들, 즉 인간은 현실의 특정한 사회구성체 속에서 현존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문제들로 이동했다.<sup>3</sup>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을 바라봄으로써, 그는 분리된 개인이 아니라 계급투쟁이 역사의 원동력이자 올바른 분석의 대상이라고 인식하게 됐다. 이렇게 마르크스를 이해하면, 이 결정적인 단절 이후, 마르크스는 그의 정치경제학 분석에서 계급, 생산력, 생산관계, 상부구조 등등의 개념을 점점 더 많이 사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된다].

하지만 마르크스가 소외와 같은 인간주의적 개념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물로부터 분리되는 현실이나, 분업,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여러 영향에 대해 그가 더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의

3 인식론적 단절 개념과 관련해서 더 상세한 내용은 Louis Althusser, For Marx (London: Verso, 1977), pp. 34-36, 49-86과 Grahame Lock, Etienne Balibar, Charles Bettleheim의 글을 보라. 초기 마르크스의 인간주의적 문제들과 그것의 수많은 변주는 같은 책 pp. 221-46을, 특히 pp. 223-26을 보라. 서구의 중국 분석가들은 인식론적 단절 개념을 거부하거나, 혹은 그저 무시하는 때가 더 많았다.

미는 아니다. 다만, 이런 문제들이 바뀌거나 제거되려면, 그 문제들이 계급사회의 일부분이라고 분석하고, 또한 경제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철학적·심리학적으로 고유한 기초를 지닌 실천이라고 분석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이런 해석에 따르면, 마르크스주의는 분리된 개인을 [문제해결의] 열쇠로 보는 인간주의적 전통을 거부하는 유물론적 문제들 내에서 작동하며, 이는 사회적 생산형태가 분석의 핵심대상이며, 계급 투쟁이 역사의 원동력이라고 인식한다.

마오의 마르크스 “해석”과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유사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마오는 정치경제학과 철학의 출발점으로서 “인간”과 개인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 그 계급적 구성을 초월하는 인간 본성이라는 어떠한 인간주의적 개념도 거부했다.<sup>4</sup> 따라서 마오의 정치경제학 저작에는 소외에 관한 언급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서구의 여러 분석가는 이를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마오가 이탈했다는 증거로 해석하지만, 나는 마오가 이런 개념을 거부하되, 보통 소외라는 항목에 포함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분석하길 선호했다고 말하고자 한다.<sup>5</sup> 마오가 직업전문화, 분업화, 관료주의에 접할 때 느끼는 무력

4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Michael Y. M. Kau and John K. Leung (eds.), *The Writings of Mao Zedong, 1949-1976: Volume 1, September 1949-December 1955* (Armonk/New York: M. E. Sharpe, 1986), pp. 565 ff에 수록된 “Preface and Editor's Notes to Material on the Hu Feng Counterrevolutionary Clique”(May-June 1955).

5 다음을 보라. Donald Munro, “The Chinese View of Alienation”, *The China Quarterly (CQ)* 59 (July-September 1974), pp. 580-623; John Bryan Starr, *Continuing the Revolution: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p. 45. (이 주제에 관한 Starr의 저작들이 인용하는 다른 글들도 포함.) 그리고 “Symposium on Mao and Marx, Part III” MC 3, 4 (October 1977)에서 특히 A. Walder, J. Starr, S. Andors, J. Gurley의 논문.

감 등등의 문제를 다루는 정책과 실천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그 예시다.<sup>6</sup>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은 헤겔이 그의 다양한 저작 속에서 발전시킨 변증법이나, 스탈린이 수용하고 조악한 형태로 대중화한 변증법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마르크스가 “거꾸로 선 헤겔을 똑바로 세운다”고 했을 때, 마르크스는 헤겔의 변증법을 관념론적 기초에서 유물론적 기초로 단지 옮겨 심는 일 이상의 무엇을 했다. 즉 그는 “미신적인 껍데기 안에서 합리적 핵심”을 추출함으로써 변증법 자체를 변형했다.<sup>7</sup> 이러한 변

6 모리스 마이스너는 그의 저작 *Marxism, Maoism and Utopianism*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82)과 아리프 딜라크의 공저, “Mao, Marx and Deng on the Division of Labor in History”, “The Deradicalization of Chinese Socialism”, *Marxism and the Chinese Experience* (Armonk, New York: M. E. Sharpe, 1989), pp. 79-116, 341-61에서 마오가 직업전문화와 분업을 극복하는 문제에 주목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논한다. Li Xun은 루스 재단(Luce Foundation, Berkeley, March 1993)의 지원을 받은 현대 상하이 컨퍼런스에서 미간행 논문 “Gongren Zaofanpai: Zhongguo wenhua dageming zuizhongyao de biaoben” (“The Workers’ Rebel Factions: The Most Important Indicator of the Cultural Revolution”)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 그는 “57 지침”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듯, 마오는 분업이 존재하지 않는 반(反)현대적, 자급자족적, 평등주의적 농민 사회주의를 더 선호함으로써 [자본주의적] 분업의 극복을 거부했고, 이것이 마오주의가 실패한 한 가지 중요한 이유라고 비판했다. [57 지침이란 1966년 5월 7일 국방장관 린뱌오에 보낸 서신을 말한다. 여기서 마오는 인민공사 대신 커다란 학교(大學校)라는 발상을 제시했다. “세계대전 없는 조건 하에서 군대는 ‘커다란 학교(大學校)가 되어야 한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이 커다란 학교는 전쟁 이외에도 다른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정치를 배우고, 군사를 배우고, 문화를 배울 수 있다. 농업과 부업에 종사할 수 있다. 중소규모의 공장을 세워 필요한 산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자산계급을 비판하는 문화혁명에 수시로 참가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군학(軍學), 군농(軍農), 군공(軍工), 군민(軍民)이 모두 결합될 수 있다.” 이 서신은 문화혁명의 정신을 담은 문건으로 널리 유포됐다.] 다른 한편으로, 관료주의에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마오와 그의 동맹자들의 능력은 종종 소외라고 불리는 것의 한 측면을 그들이 실제로도 인식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7 Althusser, *For Marx*, pp. 89-129. (국역: 후마니타스.)



증법 자체의 변형을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은 헤겔의 “단순한” 변증법을 “복잡성과 과잉결정”의 변증법으로 변형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헤겔 변증법은 정신과 시민사회 간 모순이라는 하나의 기본모순이 역사,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발전의 본질이라고 “인식한다”는 의미에서 단순하다. 이처럼 헤겔 변증법은 모든 변화가 하나의 근본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본다는 점에서 단순하다.<sup>8</sup> 일단 우리가 직접적이고 일방향적인 인과성이라는 단순한 관념을 이해하게 되면, 그 필연적인 결과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본질적인 조건이나 모순이 아닌 여타 조건이나 모순은 이러한 내적 본질에 의존하며, 그것의 단순한 발현일 뿐이다. 부차적인 조건이나 모순은 오직 기본모순이 변화할 때만 변화하며, 기본모순이 일단 변화하면 부차적인 조건이나 모순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본모순의 상태가 일단 결정되고 나면, 사회구성체의 나머지 모순들의 상태도 “간단하게” 연역될 수 있다. 본질의 특정한 발현으로서 여타 사회적 모순들은 본질적 모순 자체의 그저 부가물에 불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본모순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본모순이] 특정하게 발현되는 것이 된다.

마르크스에 관한 스탈린주의적 해석은 (그리고 스탈린주의는 아니지만 경제주의적 해석에 불과한 다른 많은 해석은) 단순한 헤겔 변증법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시대에, 사회구성체의 모든 발전수준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물질적 모순이 사회발전의 본질이자 핵심모순이라고 단정한다. 이런 문제들에서는, 이데올로기, 문화, 법, 남성지배, 민족적·인종적 억압과 같은 다른 모든 사회현상이 기본모순의 발현이나

8 같은 책, p. 197.

반영이라고 기계적으로 환원된다. 따라서 일단 기본모순이 변형되면, 즉 생산력이 일정 수준까지 발전하고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사회적 소유로 변하면, 부르주아적 권리, 임금 격차, 개인주의, 남성지배와 같은 부차적 모순들은 그들의 본질을 빼앗기고, 그에 따라 [자본주의적 모순의 소멸과] 유사한 방식으로 반드시 변형될 것이다.<sup>9 10</sup> 하지만 사회들은 이런 방식으로 발전하지 않았고, 이는 1930년대 이후로 마르크스주의 위기를 촉발한 핵심요인 중 하나다.

하지만 마르크스 변증법에 관한 마오의 해석은 위에서 간단히 설명한 유형의 변증법과는 완전히 다르다.<sup>11</sup> 마오의 해석은 단순한 변증법, 즉 그 본질의 연쇄적 부정을 통해 움직이는 변증법을 상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에 선행하거나 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이상적인 본질도 거부한다.<sup>12</sup> 그 출발점은 특정한 현존 사회구성체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모순으로 구성된 복잡하고 구조화된 통합체(whole)라고 분

9 비록 공산당은 생산의 사회화가 그저 국유화를 의미할 뿐이라고 종종 해석했지만, 이것이 [즉 국유화기] 마르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생산에 관한 사회적 통제를 평등화하는 길은 아니다.

10 Althusser, *For Marx*, pp. 94-95, 103-16, 193-200을 보라.

11 Mao Zedong, "On Contradiction", *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SW)*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67), 1, pp. 311ff을 참조하라. 여기서 마오는 주요모순과 부차모순 사이의 관계, 특수성과 보편성 사이의 관계를 논한다. 이 중 어느 것도 해겔 변증법과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Althusser, *For Marx*, pp. 194-96, 210-11, 214ff를 보라. 변증법에 관한 마오의 초기 이해를 더 알아보려면 다음을 보라. Nick Knight, "Soviet Philosophy and Mao Zedong's 'Signification of Marxism'", *JCA* 20, 1 (January 1990), pp. 89-109; Nick Knight, *Mao Zedong on Dialectical Materialism: Writings on Philosophy, 1937*, (Armonk/New York: M. E. Sharpe, 1990). 변증법에 관한 이러한 개념은, 아래에서 논의 하듯, 혁명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한다는 마오의 사상이 형성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2 그런데 힐리(Healy)는 "Reading the Mao Texts: The Question of Epistemology"에서 마오의 인식론이 합리주의와 경험주의가 일관성 없이 뒤섞인 혼합물이라고 비판한다.

석하는 것이다.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는 광범위한 여러 이론적 범주들, 예를 들어 “불균등 발전”, “약한 고리”와 같은 레닌의 개념이나 “자본주의의 부활”(資本主義復辟, 자본주의복벽)이라는 마오의 개념이 존재할 수 있지만, 반면 헤겔 변증법의 단순성에 기초를 둔 여타 개념들, 예를 들어 부정의 부정은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sup>13</sup>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 내에서만 생산, 상품, 노동력과 같은 범주들이 의미 있는 분석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이런 [생산, 상품, 노동력이라는] 범주가 객관적 실재라 기보다는 (그리고 사회 외부에 존재하는 이러한 객관적 실재가 사회에 구조를 부여한다기보다는) 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추상이자 이론적 도구일 뿐이라고 인식했다. 예를 들어 객관 세계에서 “생산관계”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실제 사회구성체들 내에 특정한 생산관계들만이 존

13 “불균등 발전”, “자본주의 부활”과 같은 개념들은 복잡성에 기초를 둔 인과성 개념을 지닌 문제들 내에서만 이론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1964년 8월 18일에 [발표한] “Talk on Questions of Philosophy” 《Mao Zedong Sixiang Wansui》(마오쩌둥 사상 만세) (n.p.: August 1969)(이하, 《만세》), p.558(Stuart R. Schram이 번역한 *Mao Tse-tung Unrehearsed* (Harmondsworth: Penguin, 1974)에서는 p. 226)에서 마오가 “부정의 부정” 개념을 거부한 것은 하나의 근원적 현상(original phenomenon)이라는 개념을 거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근원적 현상이란, 끝없는 연쇄적 자기부정을 통과하지만, 여타 현상들이나 모순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는 심지어 부분적으로도 변형될 수 없는 것이다. 슈람(Stuart R. Schram)은 이것이 마오가 “도교(그리고 또한 불교)를 재발견”한 결과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Dick Wilson (ed.), *Mao Tse-tung in the Scales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에 수록된 Schram, “The Marxist”, p. 63; Schram, *Mao Zedong: A Preliminary Reassessment*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Press, 1983) p. 66. 닉 나이트는 *Dialectical Materialism* pp. 15-24에서 [“부정의 부정”이라는 개념을 거부한 마오의] 진술이 이례적이며, 마오가 이 개념을 체계적으로 거부한 적이 없다고 논증하기 위해, 마오가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립물의 통일에 관한 마오의 개념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소련 철학에서 부정의 부정이라는 개념이 어떤 역사적 변화를 거쳤는지 검토한다.

재한다. 마르크스는 함께 한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모순과 관계의 미로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분석적 개념들을 추상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의 범주들은 헤겔의 범주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헤겔의 단순한 통일성(unity)은 사회에 선행하며, 헤겔이 보기에 사회는 기본적 통일성의 구체적 발현일 뿐이었다. [반면] 마르크스의 범주들은 이미 존재하는 복잡한 현실에 관한 분석적 개념화다. 그 범주들은 이러한 현실을 결정하지 않으며, 단지 이 현실을 이해하고 바꾸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석할 때, 이는 곧 어떤 한 사회구성체가 서로서로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모순들로 이뤄졌고, 따라서 [다른 사회구성체와] 구별할 수 없는 미로라는 의미는 아니다. 어떤 특정한 사회구성체에서 복수의 모순이 존재하더라도, 특정한 모순들은 다른 모순들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회구성체 내에 자산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에, 인종집단 간에, 남성과 여성 간에, 서로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개인 간에, 상이한 정당 간에 또는 정당 내부에 모순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모순은 수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상투쟁, 비폭력적 대립, 범죄라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국가나 법률체계, 아니면 폭력적 대치를 통해 해소되는 분쟁이라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모순의 중요성이 동등한 것은 아니며, 모든 모순이 서로 동등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떤 모순이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회구성체에서 지배적일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이 모순들이 드러나는 순서를 결정하는가? 서론에서 간단히 설명했듯, 이런 해석에 따르면, 경제는 하나의 통합체로서 사회구성체의 구조를 형성하고, 계급투쟁의 지형을 결정

하기 때문에, 최종심급에서 궁극적인 결정요인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경제는 계급투쟁 참여자들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즉, 봉건제에서는 계급투쟁이 대부분 지주와 소농 사이에서 발생하는 반면, 자본주의에서 계급투쟁은 대부분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에서 발생한다. 다른 한편으로 경제는 그러한 계급투쟁의 형태와 장소를 결정한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는 생산과정을 분리하거나 아니면 집중시키고, 학교, 종교, 대중매체[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폭력적 분쟁 때 쓸 수 있는 유형의 무기(억압적 국가장치)를 활용한다. 그리고 계급투쟁은 [경제가 결정하는 계급투쟁의] 형태와 강도(強度)에 따라, 언제나 늘 발생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구조화한다.

경제는 계급투쟁의 지형을 결정하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수준의 모순들 [중 어느 특정한 모순이] 어떤 특정한 때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계급투쟁의 일차적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사회구성체를 구조화한다. 경제가 항상 결정적이거나 일차적인 모순은 아니며, 이러한 다양한 영역에서 계급투쟁의 결과를 자동적으로 결정하지도 않는다.<sup>14</sup> 어떤 계급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느냐를 둘러싼 정

14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하라. "Engels's letter to J. Bloch on 21-22 September 1890",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Selected Works in Two Volumes*, (Moscow,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2), II, p. 488. 여기서 엥겔스는 블로흐에게 다시 한번 말하길, 현실 세계에서 생산과 재생산은 "역사의 궁극적인 결정요인일 따름이다... 마르크스도, 나도, 이것 이상으로 강하게 주장한 바는 없다." 또한, Althusser, Balibar, Locke, Barry Hindess와 Paul Hirst, Nicos Poulantzas, Ernesto Laclau, 그리고 Eric Olin Wright의 작업도 참조하라.

스티브 레글러는 마르크스의 법칙이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향성을 뜻한다고 논하는데, 이러한 레글러의 검토는 [이미 항상] 복잡하고 과잉결정된 현실이라는 개념을 강화한다. "Mao Zedong as a Political-Economist: A Critique," *AJCA* 17, 2 (January 1987), p. 213을 보라.

치투쟁에서 하나의 예시를 볼 수 있다.<sup>15</sup> 이러한 정치투쟁은 경제 전반에, 특히나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모순에 분명히도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국가권력은 어떤 형태의 소유, 관리, 기술발전이 용인되고 장려될 것인지 분명히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sup>16</sup> 1917년 러시아와 1945~1949년 중국이라는 사례처럼, 어떤 때는 경제영역의 모순이 아니라 정치적 모순이 지배적이다. 이와 비슷하게도, 이데올로기적 투쟁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투쟁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적 투쟁은 다양한 계급·계층이 객관적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이나, 이런 상황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투쟁은 1957년 여름, 중국에서 마오가 주장했듯이, 심지어 근

마오가 이러한 접근법을 고수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Nick Knight, "On Contradiction and On New Democracy: Contrasting Perspectives on Causation and Social Change in the Thought of Mao Zedong", *BCAS* 22, 2, (April-June 1990), pp. 18-34을 보라. 나이트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특히 흥미로운 생각이다. 즉 마오가 보기에 경제의 집중화된 표현으로서 정치란, 상부구조에서 경제를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토대 [그 자체]의 일부다. pp. 20ff를 보라. 나이트가 주장하는 그런 해석은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근거 있는 하나의 해석이며, 마오의 사상에서 다중 인과성이나 과잉결정이라는 개념을 강화한다. 이러한 해석은 [마오의 사상이] 장기적으로 일관성이 있었다는 주장을 보강하고, 마오의 문제들이 의지주의(voluntarism)였다는 비판에 맞서기 위한 한 가지 근거를 제공한다.

- 15 계급들과 국가권력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개념, 그리고 그 개념들의 취약성을 짚지만 명료하게 소개한 글로는 다음을 보라. Jerome L. Himmelstein, *To the Right: The Transformation of American Conservat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pp. 152-61.
- 16 사회발전에서 기술의 비(非)중립성 문제를 살펴보고, 마오주의적 문제들과 수정주의적 문제를 각각이 기술을 어떻게 다뤘는지 검토한 탁월한 글로는 다음이 있다. Arif Dirlik, "Post-Socialism: Reflections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BCAS* 21, 1 (January-March 1989), pp. 33-45. Dirlik and Meisner (eds.), *Marxism and the Chinese Experience*, pp. 117-135에 수록된 Bill Brugger, "Mao, Science, Technology and Humanity"는 마오가 기술의 비중립성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순수" 과학을 거부했다고 논한다.

본[모순에 관한 투쟁]이 될 수도 있다.<sup>17</sup> 달리 말해, 경제는 어떤 계급들이 투쟁을 벌일지를 결정하고, 그 투쟁이 취할 수 있는 형태들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조건에 따라, 공정 엘리트 내부에서 봉건적 이데올로기 투쟁이 벌어질 수 있고, 문화혁명 노선을 따르는 대중운동이 나타날 수 있다(문화혁명에서는 대중매체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마르크스주의 변증법에 관한 이러한 해석에서, 복잡성에 입각한 인과성은 사회구성체가 구조화된 통합체(whole)라고, 다시 말해, 핵심요인 즉 경제에 의해 구조화된 통일체(unity)라고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이때 경제는 계급투쟁이 벌어질 지형을 기본적으로 결정한다. 이러한 지형에서, 특정 시기의 지배적 모순은 경제적 모순일 수도 있고, 정치적 모순이거나 이데올로기적 모순일 수도 있는데, 그러한 지배적 모순의 고유성은 모든 다양한 모순의 상호작용을 반영할 것이다. 하지만, 지배적 모순 그 자체가 운동하는 범위나 한계는 결국 경제발전 수준이 끼치는 영향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은 인과성을 여러 수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즉 '지배적 모순'이라는 개념과 '최종심급에서의 경제에 의한 결정'이라는 개념이 공존할 수 있다], 인과성이 여러 방향성을 지닐 수 있다고 [예컨대 최종심급에서 경제가 이데올로기의 원인이 되지만, 일시적으로는 이데올로기가 경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인식한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일시적으로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정치적 또는 이데올로기적 모순을 둘러싼 계급투쟁이 경제의 성격이나 생산력

17 Mao Zedong, "The Situation Is Changing" (15 May 1957), "Repel the Attacks of the Bourgeois Rightists" (9 July 1957), "The Situation in the Summer of 1957" (9 July 1957). 이 글들은 Kau and Leung, *The Writings of Mao Zedong*, vol. II, pp. 546-55, 620-27, 653-65와 SW[Selected Works of Mao Tse-tung], vol. V, pp. 440\_46, 457-72, 473-82에 수록되어 있다.

과 생산관계 간 모순의 성격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념을 인식한다.

마르크스에 관한 이런 해석은 스탈린 치하에서 보급된 단순하고 경제주의적인 해석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이런 해석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복잡성에 입각한 인과성이라는 이론적 공간을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수준에서의 거대한 변화가, 예를 들어 대불황이 계급투쟁의 조건을 크게 바꾸면서도, 계급투쟁의 결과를 미리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해석은 왜 대불황이 자본주의의 붕괴를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유럽에서 파시즘의 부상과 미국에서 경제와 국가의 재건으로 이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毛泽东思想万岁

(内部资料 请勿外传)

一九六七年十一月

《Mao Zedong Sixiang Wansui》(마오쩌둥 사상 만세)는 1967년에 처음 나왔고, 1969년에 증보판이 나왔다. 《만세》는 마오쩌둥의 논저, 내부 연설, 원고, 지시 등이 담긴 출판물로 문화혁명 시기 각종 조반과 조직 이름으로 자체적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당 부분이 출판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는 글이며, 본문에서 언급되는 <소련 정치경제학 교과서에 관한 주석>도 이 저작에서 처음 등장한다. 사진은 1967년에 발행한 《마오쩌둥 사상 만세(毛泽东思想万岁)》의 표지다. (사진출처: 위키피디아)



## 2. 마오의 정치경제학적 문제들, 사회주의 과도기에 관한 마오의 분석, 그 분석의 강점과 약점

중국의 사회구성체와 중국혁명의 발전을 분석하기 위한 마오의 틀은 협소한 의미의 경제적 틀이 아니라, 분명히도 정치-경제적 틀이었다. (마오는 협소한 의미의 경제적 분석에 관해서는 본인이 훈련받은 적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했다.)<sup>18</sup> 그는 “소련 정치경제학 교과서에 관한 주석”(이하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선언했다.

정치경제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생산관계다. 그런데 생산 관계를 명료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생산력에 관한 연구를 (생산관계에 관한 연구와) 결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부구조가 생산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결합해야만

18 마오와 여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의 연구영역과 본인들의 연구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역설적이다. 왜냐하면 리카도, 스미스와 같이 훗날 큰 영향을 미친 부르주아 경제학 이론가들이 그들의 연구영역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가 바로 “정치경제학”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용어 사용법에서는 두 영역 사이에 명백한 경계가 존재한다. 잭 그레이(Jack Gray)에 따르면, “정치경제학은 밀접한 모든 사회적 관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역으로, 경제학이 이런 모든 사회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반면 부르주아] 경제학은 대안적인 자원 배분이라는 협소한 관심사를 다룬다.” Stuart R. Schram (ed.), *Authority, Participation and Cultural Change in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pp. 114-115에 수록된 “The Two Roads: Alternative Strategies of Social Change and Economic Growth in China”를 보라. 정치경제학에 관한 상이한 개념들과, 그 개념 각각의 취약성을 검토하는 최신 논의로는 James A. Caporaso and David P. Levine, *Theories of Politic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를 보라.

한다.<sup>19</sup>

이런 맥락에서 사회주의 과도기에 관한 마오의 분석은 이 문제에 관한 세 가지 측면에 주목하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sup>20</sup> 즉 (1) 사회발전의 단계적 성격에 관한 그의 개념. (2) 서로 연결된 두 가지 문제. 즉 첫째, 사회주의 과도기 동안 계급투쟁의 지속이라는 문제, 둘째, 과도기 그 자체의 본질이라는 문제, 다시 말해 사회주의가 “생산양식”을 구성하느냐 아니냐는 문제. (3) 이러한 이론적 입장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19 “Reading Notes on the Soviet Text Political Economy,” 《만세》, pp. 319-99, chap. 41. 또한 Moss Roberts가 번역하고 Richard Levy가 주석을 단 Mao Tse-tung, *A Critique of Soviet Economic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7)의 61-64장도 보라. 이 문서의 약간 다른 판본은 《마오쩌둥 사상 만세》(발행 미상, 1967) (이하 《만세》), pp. 167-247에서 볼 수 있다. 두 판본 사이의 차이점에 관한 간략한 논의는 Richard Levy, “New Light on Mao: His Views on the Soviet Union's Political Economy,” *CQ* 61 (March 1975), p. 100, 각주 20을 보라. [민승리리뷰출판사에서 나온 판본의 한글 번역본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www.pssp.org/bbs/view.php?board=document&nid=3373&page=1>]

“주석”은 마오가 저술한 것이라고 오래 전부터 추정되었으나, 1959년에 마오의 연구집단이 저술한 것으로 훗날 밝혀졌다. 이는 마오와 이 집단에 속한 여러 저자들이 쓴 글을 Hu Sheng(胡绳, 호승)이 엮은 것이다. Gong Yuzhi, “Tong Shilamu jiaoshoude tanhua”(“A Conversation with Professor Schram”), *Wenxian he yanjiu*[문헌과 연구]: 1984 nian huibianben (Documents and Rserch: 1984 compilation) (Beijing: Renmin chubanshe, 1986), p. 244.

20 이러한 맥락에서는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이 상품생산 분석이 아니라 생산관계들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 틀 내에서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고, 특히 스티브 레글러(Steve Reglar)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Bill Brugger (ed.), *Chinese Marxism in Flux, 1978-1984* (Armonk, N.Y.: M. E. Sharpe, 1985), pp. 171-203에 수록된 스티브 레글러의 “Mao Zedong as a Marxist political economist: A critique”과 “The Law of Value Debate: A Tribute to the late Sun Yefang[孙冶方, 손야방]”을 보라. 나는 이러한 비판을 앞으로 다룰 것이다.

## 1) 사회발전의 단계적 성격

일찍이 1930년대부터 시작한 마오의 정치경제학 작업은 사회가 선형적으로, 즉 점진적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일련의 단계를 통과하며 발전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보여준다.<sup>21</sup> 마오에게 있어서 모순의 기본법칙 중 한 형태로서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의 관계(양질전화), 대립물의 통일은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필수 요소였다. 어떤 사회든, 대립물의 통일이 존재하는데, 이는 곧 불균등하게 발전한 다수의 모순이 있고, 이러한 모순들이 구조화된 통합체(즉 사회구성체)를 형성한다는 뜻이다. 이런 불균등성 때문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하나의 모순이 지배적인 모순이 된다. 따라서 [지배적인] 주요모순이 해소되고 새로운 주요모순이 출현할 때(질적 변화), 사회구성체의 본질이 질적으로 변화한다. 즉, 새로운 단계가 도래한다.

그러한 질적 변화는 그에 앞서 나타나는 양적 변화를 전제로 한다. 즉 [질적 변화에 앞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특정 모순들이, 그리고 그 특정 모순들의 구체적 양상이 양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모순들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차지하는 위치를 서로 계속 바꾼다.) 다양한 모순들의 변형이 지배적 모순의 변화를 증진할 때, 즉 다양한 모순들이 “융합” 또는 “응축” 될 때, 새로운 단계로 이어지는 질적 변화가 촉진될 수 있다.<sup>22</sup>

21     마오의 초기 저작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On Contradiction”, pp. 338-39. Knight, “Soviet Philosophy”, pp. 89-92. 그의 후기 저작은 다음을 보라. Levy, “New Light”. Schram, *Mao Tse-tung Unrehearsed*에 수록된 Mao, “Talks on Philosophy”. 《만세》(1967), pp. 8-49에 수록되었고, Pierre M. Perrolle, Philip E. Ginsburg가 번역하고 편집해서 *Chinese Law and Government*, IX, 4 (Winter 1976-77)에 실은 “Talks at Zhengzhou Conference” (27 February, 1 March, and 5 March 1959).

22     다양한 모순의 융합(fusion)이라는 개념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예시를 보려면 Althusser, *For Marx*, pp. 161-218을 찾아보라.

나는 다른 곳에서 마오 사상의 단계 개념을 그의 “시기선택(timing) 이론”이라고 말한 바 있다.<sup>23</sup> 마오에게 사회구성체는 일련의 단계를 통과하고, 각 단계는 특정한 주요모순을 특징으로 삼는다. 주요모순을 인식하는 것은 해당 시기에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sup>24</sup> 1953년, 마오는 류사오치 등등이 1949년 이후 중국혁명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그들의 정책이 우경적이라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정확히도 [사회발전의 단계라는] 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25</sup> 이와 비슷하게, 대약진 초기 극좌적 오류에 관한 마오의 비판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다시 말해, 오류를 범한 극좌파 동지들은 해당 시기 주요모순을 부정확하게 규정했고,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정책을 개발했다.<sup>26</sup>

마오의 사상에서 양질전화를 보여주는 한 예시는 농촌의 하급 단위(생산대와 생산대대)에 의한 집단적 소유에서 상급 단위(인민공사)에 의한 [집단적 소유로] 이행하는 문제를 다룬 그의 논의에서 찾을 수 있다. 마오는 인민공사를 지지했는데, 인민공사가 농업생산과 국가를 위한 축적을 증대하는 수단이자, 그와 동시에, [인민] 생활의 정치적, 경제

23 Levy, “New Light”.

24 마오가 보기에, 이러한 일련의 단계는 모든 사회가 통과해야만 하는 만고불변의 단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어떤 특정한 사회구성체가 통과할 단계들은 그 특정한 사회구성체에 존재하는 특유한 모순과 계급투쟁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Charles Bettelheim, *Class Struggles in the USSR, Second Period: 1923-1930*, Brian Pearce (tran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8), pp. 548-50을 보라.

25 예를 들어 Kau and Leung (eds.), *The Writings of Mao Zedong*, Vol. I, pp. 347-51에 수록된 Mao Zedong, “Criticize the Right-Deviationist Viewpoints that Depart from the General Line” (15 June 1953)을 보라.

26 예를 들어 《만세》(1967), pp. 18-19에 수록된 “Mao’s talks at Zhengzhou”를 보라. 이 글은 *Chinese Law and Government IX*, 4 (Winter 1976-77)에 번역되었다.

적, 군사적 요소들을 하나의 통일적 조직체로 통합하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마이스너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통합은 비록 궁극적으로 실패하기는 했지만, 분업과 직업전문화라든가, 그외에도 자본주의에서 소외를 발생시키는 여러 요소(공산주의가 더 우월한 실천을 통해서 대체하게 될 요소)를 극복하는 것을 대체로 목표로 삼았다.<sup>27</sup> 이런 맥락에서 마오는 인민공사 수준의 소유가 전 인민의 소유라기보다는 여전히 집단적 소유의 한 형태이기는 했지만, [농촌에서 이행을 향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만약 소유권이 지나치게 빠르게 인민공사로 이전되면, 이는 더 선진적인 생산대와 생산대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선진적인 생산대와 생산대대의 자산이 인민공사 전체에 동등하게 분배되면, 그들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만약 소유권이 너무 느리게 이전된다면, '규모의 경제'가 주는 잠재적 이익을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마오는 양적인 성장이 특정한 목표치에 도달할 때에만, 다시 말해 (새로운 생산력이 도입되고, 인민공사가 소유하는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함으로써) 인민공사들 내에서 창출된 자산의 절반 이상이 인민공사들이 소유하는 단위에 의해 창출될 때에만, 인민공사 소유를 향한 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조건이 실현되도록 새로운 생산단위가 발전할 때에만, 전반적인 생산수준과 생활수준이 상당히 상승하고, 인민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며, 인민공사 구성원의 소득 중에서 인민공사 소유 단위에서 나오는 소득의 비중이 점차 증가한 결과로 부유한 생산대·생산대대와 빈곤한 생산대·생산대대 간 소득

27 위의 각주 6번을 보라. "세 가지 차이"(도시와 농촌 간, 산업과 농업 간,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대약진 이래로 마오의 저작과 마오주의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난 테마였다.

격차도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차모순들의 변화들은 인민공사 소유 단위가 창출하는 자산이 차지하는 양적 비중의 변화와 융합함으로써, 인민공사 소유를 향한 질적 전환을 가능케 하고 농촌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할 것이다.<sup>28</sup>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인민공사와 대약진은 전혀 마오가 제시한 것처럼 발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의해야만 한다. 한편으로는, 셀든이 주목하듯, 마오의 이론적 입장은 그의 지도를 받으며 시행된 정책들과 종종 매우 달랐다.<sup>29</sup> 다른 한편으로, 마오의 이론과 정책에 대한

28 “주석” 25장. 그런데 농민의 연평균소득이 단지 150위안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인민공사 소유로의] 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마오의 언급이나 (같은 글, 58장) [1967년 당시 농민의 연평균소득은 65위안이었다, 이러한 [부차모순들의] 변화들이 발생하는 속도에 관한 마오의 언급은 [인민공사 소유로의] 전환에 있어서, 그러한 [부차모순들의] 양적인 변화들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는 심각한 질문을 낳았다.

29 Dirlik and Meisner (eds.), *Marxism and the Chinese Experience*, pp. 43-58에 수록된 Mark Selden, “Mao Zedong and the Political-Economy of Chinese Development”. 셀든은 마오가 [농업, 경공업에 비해] 중공업 투자율이 높아야 한다는 스탈린적 관념과 “단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오의 지도 아래서도 높은 수준의 [중공업] 투자율이 사실상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고, 심지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페넬로페 B. 프라인(Penelope B. Prime)도 대약진과 문화혁명기에 중공업 투자율이 극도로 높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비록 그녀는 이러한 정책이 낳은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희생, 양 측면을 지적하긴 하지만 말이다. Dirlik and Meisner (eds.), 같은 책, pp. 136-51에 수록된 Prime, “Socialism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Politics of Accumulation in China”을 보라. 또 Li Chengrui, “Shinian neiluan qijian wogou jingji qingkuang fenxi” (“An Analysis of the Economic Situation in Our Country During the Ten Years of Chaos”), *Jingji Yanjiu*[경제연구] (January 1984), pp. 23-31을 보라.

중공업 투자의 축소는 마오 사후에 전개된 초기 개혁의 결정적인 특징 중 하나였다. 하지만 몇몇 저술가는 [개혁] 이전에 중공업 투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축소가 비로소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1994년 3월 보스턴에서 열린 AAS 컨퍼런스의 발표에서 셀든은 비슷한 맥락의 주장을 펼쳤다. 즉 그는 [중국의] 가구등록제도, 즉 호구(戶口) 제도는 노동의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악화시킴으로써, 마오가 공언한 목표와 모순을 빚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 호구 제도는 제3세계 국가 대부분을 괴롭혔던 도시 빈민촌을 중국이 피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유리한 반대를 고려하면, 마오의 처방과 실제 정책이 괴리된 책임을 전적으로 마오에게 물을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보면, 비록 마오가 [정책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지만, 한 개인으로서 마오는 다른 어떤 개인에 비하더라도 더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대약진과 관련된 여러 재앙이 벌어지게 한 정책에 대해 마오는 분명히도 매우 중대한 책임이 있다.

## 2)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생산양식”

마오의 사상에서, 특히나 1949년 이후 마오의 사상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단계 개념은 중요한 요소지만, 마오가 사회주의 시기의 계급투쟁을 분석하고, 이 주제를 두고 스탈린적 마르크스주의와 단절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더 중요하고 논쟁적이다.

스탈린은 사회주의 시기의 계급투쟁을 분석할 때, (1936년 헌법이 보여주듯) 계급투쟁이 끝났다는 입장과 [오히려] 계급투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입장 사이에서 진동했다. 그에 따라, 계급투쟁을 다루는 그의 정책도 진동했는데, [예를 들어] 기술자와 전문가에 더 높은 임금을 주며 환심을 사려하기도 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억압하기도 했다.

이런 진동의 이론적 근원은 본질적으로 경제주의적-인간주의적 문제들에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주의가 중대한 내부 모순이 없는 안정적인 생산양식이라고 보았다. 즉 사회주의란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조화하는 하나의 특정한 방식이라고 인식했다.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조화 방식이 잉여노동을 영유하는 특정한 양식과, 그 양식에 적합하도록 생산수단

을 분배하는 특정한 형태를 정의한다.) 스탈린은 일단 토대가 사회화되었다면, 즉 일단 사적 소유가 국가 소유로 대체되었다면, 사회구성체의 다른 영역에서 사회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이 확립됐다고 주장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상부구조는 변혁이 달성된 토대와 일치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주의 생산양식”의 발전 정도는 국가나 집단[농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생산력의 발전 수준으로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론적] 틀 내에서는 계급투쟁이 부차화되며, 오로지 두 가지 원천에서, 즉 외부의 제국주의적 공세과 낡은 착취계급의 잔존이라는 원천에서 발생할 뿐이다. 국가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두 가지]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강제적인 기구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사실상 동일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사회주의 시기에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강도는 제국주의적 공세의 강도(이는 근본적으로 “사회주의 생산양식” 외부에 있는 요인이다)와, 사회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의 잔재를 제거하는 국가의 효율성에 따라 변할 것이다. 이런 문제설정에 따르면, 사회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며 모순이 없다.<sup>30</sup>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주의에 관한 마오의 분석은 사회주의 생산양식이라는 스탈린적 개념과 단절했다. 이러한 단절을 통해서 대체로 마오는 중국혁명의 발전에 조용하여 그의 초기 이론적 입장을 재조합하고 발전시켰다. 그리고 [스탈린적 개념과의] 이러한 단절은 그가 1950년대 후반에 제시했던 부단(不斷)혁명 이론과, 그보다 후에 제시했

30 이 문제설정에 관한 훌륭한 요약은 Reglar, “Mao as Political Economist”, p. 223을 보라.



던 계속(繼續)혁명 이론 사이의 단절을 통해 뚜렷하게 나타난다.<sup>31</sup> [즉 부단혁명론에 비해, 계속혁명론은 사회주의 생산양식론을 뚜렷하게 거부했다.]

이 단절을 통해서 마오는 문화혁명 때 “생산력 이론”이라고 명명한 경제주의적 관념, 즉 소유제의 변형과 생산력의 발전이 상부구조의 변형과 사회주의의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관념을 거부했다. 마오는 사회주의 사회가 모든 수준에서 [즉 토대와 상부구조, 모두에서] 모순으로 분할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요소들은 경제적, 정치적, 이념적 수준에서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런 요소들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그 요소들은 자신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들을 자연발생적으로 계속 생성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자본주의 경향”은 사회주의가 거두었던 처음의 승리, 그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본주의의 부활을 이끌 수도 있다.

31 존 바이런 스타(John Bryan Starr)는 *Continuing the Revolution*, pp. 301-09에서 부단혁명과 계속혁명의 차이를 주목하지만, 그 차이를 사회주의 생산양식 문제와 연결하지 않았다. 스티브 레글러와 그레이엄 영은 각각 “Mao as Political Economist”, pp. 219ff(특히 각주 97)과 “Mao Zedong and Class Struggle in Socialist Society” *AJCA* 16 (July 1986), pp. 50ff에서 부단혁명과 계속혁명의 차이에 주목하고, 이 차이를 곧바로 사회주의 생산양식 개념과 연결한다. 상하이 학파의 정치경제학 원고는 실제로 마오주의적 문제들을 명확히 표현하고자 쓰인 것으로, [편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명시적으로 사회주의 생산양식 개념과의 단절을 지지한다. “정치경제학의 기초”(Fundamentals of Political Economy) 저자 그룹이 엮은 *Zhengzhi jingjixue jichu zhishi*[정치경제학 기초지식]의 번역본은 George C. Wang (ed.), *Fundamentals of Political Economy* (Armonk, N.Y.: M. E. Sharpe, 1977)을 보라. 상하이학파의 이론적 구조에 관한 훌륭한 분석은 Peer Moller Christensen and Jorgen Delman, “A Theory of Transitional Society: Mao Zedong and the Shanghai School”, *BCAS* 13, 2 (April-June 1981), pp. 2-15을 보라. [이 글의 한글 번역본, 「마오쩌둥과 상하이 학파의 과도기 사회론」은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3년 여름호에 수록되어 있다.]

사회주의가 거둔 처음의 승리가 불안전하다는 마오의 인식은 1964년, 프랑스 문화부장관 앙드레 말로에게 했던 그의 말에서 특히 분명히 드러난다.

(호루쇼프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모순이 (소련에서) 사라졌다고 상상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사회주의의] 승리 때문에 발생하는 모순들이 예전 [자본주의의] 모순들보다 덜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그 모순들은 [자본주의의 모순들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을 겁니다. 자살에 맡겨둔다면, 인류(humanity)는 필연코 자본주의를 재확립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로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당신의 말은 아마도 옳을 것입니다), 불평등은 재확립합니다. 새로운 [지배]계급을 창조하려는 경향이 지닌 힘은 강력합니다... 호루쇼프는 공산당이 권력을 잡는 순간에 혁명을 완수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혁명이 그저 민족해방의 문제인 것처럼 말입니다..

레닌은 [공산당이 권력을 장악하는] 시점에야 혁명이 시작될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sup>32</sup>

따라서 자연발생적인 자본주의적 경향이 강력한 사회에서, [계다가] 이 경향에 맞서는 어떤 투쟁도 없다면,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혁명의 최초 승리에도 불구하고 확립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마오가 보

32 André Malraux, *Anti-Memoirs*, Terence Kilmartin(trans.), (London: Rinehart and Winston, 1968), pp. 465-67. 이 특별한 인용문은 《만세》(1967), pp. 616-24로 출판된 이 좌담의 판본에는 담기지 않았다. 여기서 마오가 계급으로 구별되지 않은 “인류”(humanity)을 언급한 것은 인간주의와 단절이 불완전함을 보여준다. 유사한 다른 예시로는 “주석”의 25장과 부록 2장을 참조하라.

기에, 공산주의가 성취될 때까지 이런 경향에 맞서는 투쟁은 필연적이며, 그 투쟁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형태를 취한다.

여기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마오의 개념도 스탈린적 마르크스주의의 개념과 달랐다. 스탈린적 문제설정에서는 자기 스스로 유지되는 “사회주의 생산양식”을 확립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그러나 일단 사회주의 생산양식이 확립되면,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내부에 남아 있는 자본주의 잔재를 억누르고 제국주의적 공격을 물리치는 국가장치로 근본적으로 축소(sic)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오는 공산주의가 확립되기 전까지 사회주의 전 시기에 걸쳐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의 대리인들이 내부에서 나오든 외부에서 나오든 간에,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역할은 그 대리인들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프롤레타리아와 그 동맹자들을 위해 생활을 개선하고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사회주의의 새로운 사물(新生事物)”을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의 모든 수준에서 자본주의적인 실천과 싸울 것이다. 심지어 국가, 국가소유[기업], 공산당 내부에서도 싸울 것인데, 그것들도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이다.<sup>33</sup> 따라서 사회주의의 발전

33 국가, 국가소유[기업], 공산당이 순수하게 프롤레타리아적인 제도라기보다는, 모순적인 제도라고 설명하는 것은 스탈린적 마르크스주의 안에서 이단(異端)이다. 실제로, 상하이 학파가 쓴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네 번째 원고가 대변하듯이, 1970년대 중반에 이르면, 마오주의적 문제들은 생산수단의 국가소유가 소유체계를 “비(非)부르주아적” 형태로 변형하는 것과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Christensen and Delman, “Shanghai School”, p. 13을 보라.

비록 마오는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좀 더 전통적인 의미의 독재에 더하여, 민주주의도 포함할 것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했지만, 그가 용인하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비판의 수준은 엄청나게 변했다. 이는 사회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그의 관점이나 사회주의의 상대적 안정성

정도는 모든 사회적 수준에서 [즉 토대와 상부구조에서] 새로운 프롤레타리아적 실천이 얼마나 발전하고 강화되고 있느냐는 관점에서, 다른 말로 하자면, 중국 사회구성체 전반에 걸친 계급투쟁을 분석함으로써 평가될 것이다. 하지만 마오는 그런 평가를 내리기 위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세운 적이 없다.

분명히도, 위에서 언급한 [마오의] 문제들은 문화혁명이 전개될 수 있는 이론적 맹아들을 품고 있었고, 문화혁명은 사회의 각계각층에 속한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물론 문화혁명은 이상을 품고 있었고, 동시에 부절제한 행동들(excesses)도 나타났다.<sup>34</sup> 혁명의 급진성을 버리려는 경향에 맞선 마오의 투쟁, 평등을 향한 마오의 투쟁, 직업전문

에 관한 그의 시각이 1950년대 중반부터 문화혁명기에 이르는 동안 변했기 때문이다. 문화혁명 때에, 마오주의적 문제들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네 가지 모든 것”(四個一切)에 집중했다. ((네 가지의 모든 것이라) 모든 계급 구분의 제거, 그러한 계급구별이 의존하는 모든 생산관계의 폐지, 그러한 생산관계와 조응하는 사회적 관계들과 사상의 폐지를 말한다.) Zhang Chunqiao, *On Exercising All-Round Dictatorship Over the Bourgeoisie* (Beij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75), p. 16을 보라. 장춘차오의 이 글은 1852년에 마르크스가 바이테마이어(Weydemeyer)에게 보낸 편지와 [마르크스의] *The Class Struggle in France, 1848-1850*을 인용한다. 후자[『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는 *Anti-Dühring*(반(反)뒤링과 함께 1970년대 초반 중국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인용된 저작에 속하며, 마오가 쓴 “고위 간부에게 추천하는 고전”(Classical Works Recommended to High Ranking Cadres)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이 목록은 1960년 즈음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JPRS 61269-1:234에 번역된 《만세》(1967), p.256을 보라.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사회주의의 동의어라고 보는 연구로는 Etienne Balibar, *On the 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 (London: New Left Books, 1977)(국역: 연구사, 1988)을 보라.

34 문화혁명 이후 여러 평론은 문화혁명의 책임이 마오와 사인방에게 있다고 비난했지만, 그러한 평론들은 수많은 사람이, 매우 다양한 이유로, 최소한 처음에는 마오와 문화혁명을 지지하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무시했다. 비록 문화혁명의 초기 지지자 중 많은 사람들이 마오 등등이 제시한 바와 다른 근거로 행동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마오를 신뢰하고 마오와 그의 동맹자들이 제시한 견해들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면, (대중매체의 부추김, 청년의 열기, 여러 상징을 고려하더라도) 문화혁명은 없었을 것이다.

화와 분업을 극복하려는 마오의 열망이라고 마이스너가 지칭한 것들은 모두 전자문화혁명의 이상에 기여한다.<sup>35</sup> 프라임과 여타 논자들은 문화혁명기의 경제적 진보를 지적했다. 물론 그것이 치른 비용도 함께 논했지만 말이다.<sup>36</sup> 블레처는 [문화혁명이] 중국 사회라는 틀 속에 계급에 기초를 둔 문제의식을 불어넣고자 시도함으로써 그람시적 유형의 “헤게모니적 도전”이 나타났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또한 이런 실천들을 통해서 지역적 수준에서 민주적 참여가 확대될 잠재성이 있었다고 강조했다.<sup>37</sup> 반면에 무엇이 중국혁명을 크게 뒤흔들었던 사건들이 벌어지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했냐는 측면에서 보면, 마오의 문제들에 존재하는 심각한 이론적 취약점이 (이는 내가 아래에서 설명할 것이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절제한 행동을 옹호했던 마오의 그 유명한 편향<sup>38</sup>보다도 더

35 Meisner, *Marxism, Maoism and Utopianism*.

36 위의 각주 29번을 보라.

37 Marc J. Blecher의 다음 글들을 보라. “China’s Struggle for a New Hegemony”, *Socialist Review* 19, 2 (April 1989), pp. 5-35. Sabrina Petra Ramet (ed.), *Adaptations and Transformation in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ystems* (Boulder: Westview Press, 1990), pp. 111-40에 수록된 “Hegemony, Class and State Socialism: Toward a Theoretical Approach to Cultural Change, with Application to the Chinese Case”. Brantley Womack (ed.), *Contemporary Chinese Politic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p. 129-52에 수록된 “The contradictions of grass-roots participation and undemocratic statism in Maoist China”. 비록 블레처는 이런 구조들 속에 존재하던 민주주의의 어떤 가능성을 묘사하긴 하지만, [문화혁명의] 실천들은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또는 경제적 수준에서 독립적인 근거지들이 발전하도록 촉진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산당에 의존적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실천들은 공산당에 도전할 수 있는 민주적 참여가 발전하기 위한 장기적인 기회를 침식했다. 같은 책, pp. 180-206에 수록된 Hong Yung Lee, “From revolutionary cadres to bureaucratic technocrats”은 어떻게 [문화혁명기] 각각의 캠페인이 끝난 후 관료제가 성장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침식했는지 분석한다.

38 이러한 편향은 “혁명은 만찬이 아니다”, “과괴 없이 건설도 없다”는 마오의 유명한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혁명은 만찬이 아니다”(革命不是請客吃飯)는 표현은 마오가 1927년에 쓴 호

중요하다.<sup>39</sup>

위에서 검토한 마오의 문제설정이 형성되는 과정은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초반에 나온 그의 연설과 저작에서, 특히 그의 스탈린 비판과 “주석”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sup>40</sup> “주석”은 마오의 마르크스주의적 문제설정과, 마오와 관련된 실천과 사회세력, 즉 “마오주의” 사이에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제공한다. 원래 이 저작은 마오 본인의 주석이라고 여겨졌는데, 지금은 소련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함께 검토했던 마오의 연구집단이 작성한 주석이라고 알려져 있다.<sup>41</sup> 그런데 [연구집단의] 저작이 마오 [개인]의 저작 속에 포함되므로 [즉 집단 저작이 마오 개인의 저작인 것처럼 공개되었으므로], 당연하게도 마오와 마오주의 [집단] 사이

남성 농민운동 보고서에서 나온다. “혁명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전복하는 봉기이자 폭력행동이다”라는 말이 이어진다. “과괴 없이 건설도 없다”는 말은 당나라 때 한유가 말한 ‘불과불립(不破不立)’에서 따온 것인데, 마오는 ‘불과불립(不破不立), 선과후립(先破后立)’ 즉 ‘부수지 않고 세울 수 없다. 먼저 부수고 다음에 세운다는 자기 식 표현으로 바꾸었다.]

39 달리 말하면, 일부 문화혁명 옹호자들은 문화혁명에서 나타난 “부절제한 행동”이 마오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마오와 그의 동맹자들은 문화혁명의 기초가 되는 문제들과 정책들을 명료하게 구성하고 공표했다. 따라서 그러한 “부절제한 행동”은 분명히도 마오의 책임이다. 이는 미국의 베트남 정책에서 나타난 “부절제한 행동”, 예를 들어 미라이(My Lai) 학살이나, 팔레스타인 난민캠프 학살처럼 이스라엘의 레바논 정책에서 나타난 “부절제한 행동”이 각각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책임인 것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베트남과 레바논에 “부절제한 행동”이 끼어들게 한 개입주의적 문제들과 정책들이 없었다면,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40 마오의 스탈린 비판은 다음 글들에서 볼 수 있다. 《만세》(1967), pp. 116-22과 156-66. 그리고 Roberts가 번역한 *Critique of Soviet Economics*, pp. 129-47에 실린 《만세》(1969), pp. 247-51, MacFarquhar et al. (eds.), *Secret Speeches*, pp. 455ff에 실린 마오의 1958 정저우 연설. *Chinese Law and Government IX, 4* (Winter 1976-1977)에 수록된 마오의 1959 2-3월 정저우 담화(특히 p. 91을 보라). 《만세》(1969)는 열리지 않았던 1959년 11월 정저우 회의에서 이 담화가 있었다고 부정확하게 날짜를 기입했다. 이에 관해서는 Roberts가 번역한 *Critique*에 있는 주석을 보라.

41 위의 각주 19번을 보라.

의 경계선은 점점 더 흐릿해진다.<sup>42</sup> 마오를 평가할 때, 우리는 그의 개인적 사상과 행동뿐만 아니라 그것이 중국 사회에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마오주의] 세력의 이론적 기여(와 취약성)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오주의 세력의 존재는 마오와 그 동료들의 지지에 의존했다.)<sup>43</sup> 따라서 내가 마오의 문제들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비판할 때, 그리고 논자들의 비판을 분석할 때, 마오의 저작뿐만 아니라, 마오의 생각을 마오 본인보다 더 명확하게 발전시킨 다른 이들의 저작도 활용한다.

### 3. 마오의 문제들에 담긴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비판

마오주의적 문제들과 이와 연결된 [마오주의] 세력의 붕괴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마오주의] 세력은 현존 사회제도 안의 결함을 정확하게 겨눌 수 있었고, 따라서 엘리트 내에 존재하는 다른 집단들(즉 주자파)과 벌이는 투쟁에서 그들을 지지

42     마오의 출판된 저작들은 편집되었고, 상당 부분이 빈번히 수정되었으며, 상이한 분과들이 그것들을 두고 투쟁을 벌였다. 따라서 이렇게 편집과 수정, 투쟁이 벌어졌던 방식을 검토해야만, 마오와 마오주의 집단을 구별하는 게 과연 유용한지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akeuchi Minoru가 마오 초기 저작의 상이한 판본들을 한 자 한 자 비교한 것을 보라. 또한 MacFarquhar et al. (eds.), *Secret Speeches*, pp. 75-103에 수록된 Timothy Cheek, "Textually Speaking: An Assessment of Newly Available Mao Texts"과 닉 나이트의 저작들도 참조하라.

43     여기서 나는 「극좌파」 성무원(省無聯)이나 상하이 인민공사 지지자들 사례처럼 문화혁명의 초기 국면에 번성했다가 그 후에 비난과 억압을 받았던 광범위한 집단들이 제시했던 이론적 입장을 모두 언급하지는 않겠다. 물론 그러한 입장들도 문화혁명기에 마오의 문제들이 실행될 때 나타난 흥미롭고 중요한 결과지만 말이다. 오히려 나는 문화혁명기에 나온 다양한 공식 간행물 중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개인들이 제시한 이론적 입장을 언급하고자 한다. [레비는 Wushenglian이라고 표기했는데, Shengwulian의 오기인 듯하다. 성무원은 '호남성회 무산계급 혁명과 대연합위원회'의 약자로 1967년에 구성된 조직이었다.]

하는 대중기반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반면,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비판했던 자본주의적, “수정주의적” 제도를 대체하는, 완전히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안적 체계를 결코 발전시킬 수 없었다. 그 결과, 그들은 대중기반을 잃기 시작했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행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이런 경향은 결국 그들이 본래의 기반에서 더 멀어지게 했고, [악순환의] 소용돌이가 바닥을 칠 때까지 권위주의적 정책 등등에 더욱더 의존하게 했다. 그에 따라 마오 없는 마오주의자들은 어떤 중대한 반대도 없이 전복되었다.<sup>44</sup>

마오주의적 정치경제학의 문제설정과 그 결과에 관한 가장 중요한 비판 중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집중하는 비판이 포함된다. (1) 자본주의의 부활과 계급투쟁이라는 중심개념의 기초를 이루는 계급과 자본주의를 정의할 때 드러나는 결함, (2) 환원주의, (3) 생산관계에 대한 과도한 집중.<sup>45</sup>

## 1) 계급, 자본주의, 수정주의에 대한 정의

사회주의 시기의 계급 문제에 대한 마오주의적 접근에서 특징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마오와 그의 지지자들은 적대적 계급투쟁이 과거에

44 다음 글들도 이런 분석을 공유한다. (공유하는 정도는 서로 다르지만.) Young, “Class Struggles”, pp. 65ff. Prime, “Economic Development”, pp. 146ff. Li Xun, “Gongren Zaofanpai”.

45 수많은 저자가 이러한 세 가지 부류의 비판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특히 관련성이 높은 비판만을 인용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부류의 비판 외에도, 마오의 문제설정에 관한 또 다른 중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마오의 인식론에 대한 폴 힐리(Paul Healy)의 통찰력 있는 비판을 담고 있는 “Reading the Mao Texts”를 보라.



존재하던 계급의 존재 때문에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는 스탈린적 문제들이자, 덩샤오핑도 지지했던 것이다), 새롭게 형성된 적대적이고 비(非)프롤레타리아적인 계급집단 때문에 발생한다고 인식했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마오주의자의 문제들이 계급을 다루는 방식에서는 핵심 쟁점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지적하긴 하지만, 그 쟁점을 정의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레이엄 영은 마오의 문제설정이 사회주의 시기에 계급투쟁이 발생하는 원천을 세 가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마오의 문제설정에 존재하는 결함에 대한 최선의 비판 중 하나를 제시했다. 세 원천 중 첫째는 과거에 존재하던 계급들의 계급적 잔재로, 이는 소유관계를 통해 정의된다. 영은 이것이 “사회주의 생산양식”이라는 문제들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둘째는 부르주아의 재형성인데, 여기서 부르주아는 더 광범위한 요소들로 정의된다. 영은 이것이 “사회주의 생산양식”이라는 문제들과의 단절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셋째는 권력과 특권에 기반한 새로운 착취적 집단의 형성이다. 이는 마오가 [프랑스 장관] 말로와의 인터뷰에서 내비쳤던 바다. 착취집단이라는 최종 형태는 공산당 내 직위를 포함해 사회의 지도적 직위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대민주”(大民主)를 통해 그들에 맞서 싸워야 할 것이다. 즉 대민주를 통해서, 대중은 마오쩌둥 사상을 교육받고, (심지어 마오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따름으로써, 공산주의를 향한 진보의 보증자로서 공산당을 대신할 것이다.<sup>46</sup>

그런데 영은 계급투쟁의 세 가지 원천에 대한 인식 각각이 중국사회의 성격에 관한 상호 배타적인 개념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그 개념 각

46 Young, “Class Struggle”.

각은 자기와 짝을 이루는 [계급투쟁의] 사회적 기초를 상정한다고 주장한다. 즉 첫 번째 개념의 짝은 낡은 소유권이다. 두 번째 개념의 짝은 두 가지 소유제도[국가소유와 집단소유]와 세 가지의 차이[도시와 농촌 간, 산업과 농업 간,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 차이], 그리고 부르주아적 권리[예컨대 임금차등을 낳는 ‘노동에 따른 분배’]다. 세 번째 개념의 짝은 정치권력에서의 불평등이다. 이어서 그는, 이러한 개념들은 본질적으로 양립 불가능하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채로 뒤범벅되어, 문화혁명의 정치적 미사여구가 되었다고 말한다. 계급을 정의하는 근거가 계급 기원인지 [즉 혁명 전에 어떤 계급에 속했는지], 아니면 계급 지위인지 [즉 혁명 이후 특권층에 속하는지 아닌지] 문제를 두고 마오주의자들은 크게 진동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영은 자신의 분석이 무엇보다도 이러한 진동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마오주의자의 문제설정이 이처럼 상이한 계급지형 분석(topology of class)을 전혀 체계적으로 연결하지 않았다는 영의 생각은 설득력이 있지만, 그러한 분석들이 양립할 수 없다는 그의 결론은, 만약 그 결론이 계급에 관한 본질적으로 경제주의적인 정의로 후퇴한다면,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중국 지도부의 어느 부문도 1949년 이후 중국에 관한 진지한 계급분석에 착수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를 악화시켰다. 이것은 계급 분류체계가 여전히 해방 전의 범주로써 정의되는 상황을 야기했다.<sup>47</sup> 해방 후 중국에서 실행된 생산과정이라든지, 당이 생산과 사

47 [당과 국가의 공식서류에 기록된] 계급성분은 세대를 넘어 세습되었고, 따라서 계급에 기반을 둔 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카스트 제도에 더 가까운 것을 창출했다. 게다가 사회주의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노동계급이라는 개념과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프롤레타리아라는 바로 그 개념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프롤레타리아의 결정적 특징이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식 입장을 따르거나, 아니면 마오의 문제들을 따르더라도, 노동력은 사회주의 중국에서 더는 상품이 아니었다!

회전반에 대해 행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지도부의 의지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출현하는 모순들을 조망할 수 없었고, 응집력 있게 계급을 분석할 가망성도 별로 없었다.

그렇더라도, 자본주의 세계질서 내부에 존재하는 그러한 과도기 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그리고 마오주의적 문제설정이 다차원적인 인과성을 인식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계급분석 요소들을 일관성 있게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서구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사회구성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층들, 즉, 종종 상호 모순을 일으키는 층들을 통합하면서 [즉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면서] 계급에 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는 사실은, 중국의 계급분석이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시사한다.<sup>48</sup>

자본주의와 수정주의(revisionism)라는 서로 연관된 개념들을 정의하기 위한 마오주의적 문제들의 접근방식도 핵심 쟁점을 뚜렷하게 강조하지만, 이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계급분석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준다.<sup>49</sup> “자연발생적인 자본주의적 경향”과 “수정주의적 실천”은 사회주의 중국 도처에 계속 존재했다. 마오주의적 문제들은 그러한 위협 요소의 지속적인 존재와 심각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당시 중국 사회주

48 예를 들어 Nicos Poulantzas, Charles Bettelheim, 그리고 Eric Olin Wright의 저작을 참조하라.

49 “수정주의”는 일반적으로 계급투쟁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영(Young)은 “Class Struggle”, p. 55에서 [마오주의자들이 보기에] 수정주의란 “그저 잔존하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아 마르크스-레닌주의가 타락한 것을 넘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계급들의 재생을 촉진하면서도 이를 은폐하는 방식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체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었다”고 언급한다.

의와 자본주의 간 차이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강조했고, 때로는 좀 더 정교한 분석을 제시했는데, 예를 들어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성취된 그 모든 것이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의 발전이었다는 생각을 역설했다.<sup>50</sup> 비록 “자본주의적”, “수정주의적”이라고 명명한 실천들은 사회주의 과도기에서 대개 핵심적인 이론적 쟁점을 담고 있었으나, [마오주의적 문제들은] 그것들을 결코 체계적으로 연결하거나 통합함으로써 일관성이 있는 전체적 틀을 구성하지 못했다. 즉, 소련공산당의 수정주의적 실천이 양적으로 어느 정도 지점에 이르면 다른 요인들도 결합하여 자본주의의 부활이라는 질적인 변형을 야기할 것인가 밝히지 못했고, 수정주의적 실천을 정의할 때 일관성조차 없었다.<sup>51</sup>

50 Kang Li, “On the Bourgeoisie in the Socialist Period”, *Xuexi yu Pipan*[학습과 비판]7 (1976), pp. 25, 28. Young, “Class Struggles”, p. 47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마오주의자들이 중국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부터 단절이 취약하다고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덩샤오핑과 그 지지자들은 ‘마오주의자들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할 능력이 없다’며 마오와 그 지지자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51 자본주의의 부활에 관한 저작을 검토할 때, *Is Yugoslavia a Socialist Country?*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63)와 *On Khrushchov's Phoney Communism and Its Historical Lessons for the World* (Peking: Foreign Languages Press, 1964)는 두 가지 핵심적인 문헌이다. 보통은 마오가 썼다고 여겨지지만, 이는 아직 확실히 문서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두 문헌은 마오의 견해를 분명히 표현한다. 두 문헌의 강점과 결함에 관한 초기의 분석으로는 Richard Levy, *The Political-Economic Thought of Mao Zedong, 1917-1965* (unpub.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1976), pp. 322-31을 보라. 이 글의 기본적인 주장은, 부르주아 친화적 정책이 야기하는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의 분화)를 식별하지 못하는 무능이 수정주의의 결정적 특징이라는 것이다. 마틴 니콜라우스(Martin Nicolaus)의 저작에서 흥미로운 간접적 정보는 찾을 수 있다. 그는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의 번역가이자, 1970년대 미국의 친중국 공산주의 조직이었던 ‘혁명연합’(Revolutionary Union)의 선도적 이론가였다. 니콜라우스는 흐루쇼프가 기계-트랙터 관리소(Machine-Tractor Station, MTS)를 농민에게 돌려준 것이 생산수단에 상품 관계를 제도입함으로써 소련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부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MTS는 집단농장에 농기계와 작동자를 공급하는 기관이었

## 2) 환원주의

마오주의적 문제설정은 인과성의 다차원성을 계속 강조했지만, 그러한 기본 전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환원주의와 밀접한 형태들을 용인했다. 이러한 형태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성”의 절대시. 이러한 절대시는 (2) 전위에 관한 절대론적 개념이 형성되도록 기여했다. (3) [절대적 과학인] 마르크스주의로 무장한 (또는 문화혁명기의 표현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로 무장한) [절대적] 전위는 일과임 같은 프롤레타리아의 단순하고 불변하는 이해관계를 과학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주제에 관한 마오의 입장을 1950년대 중반과 문화혁명기 사이에 비교해보면 매우 놀랍다. 위에서 논한 것처럼, 1950년대 중반 마오의 저작에서는 마르크스주의의 과학성이 사회발전의 법칙이나 경향을 발견하는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인식됐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는 사회발전과 계급투쟁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그 투쟁에 개입하는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이 항상 완결적이거나 옳다는 보장도 없었고, 자동적으로 올바른 정책이나 실천을 생산한다는 보장도 없었다. 따라서 1950년대 중반, 마오의 문제설정에 따르면, 공산당은 더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보유하고 더 바람직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개발할 것이므로, 따라서 공산당은 그런 정책 덕분에 도전자와 성공적으로 경쟁하면서 대중을 설득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다. 주로 트렉터 여단과 자동차 여단으로 구성되었다.] 1975년 2월, 3월 뉴욕 《가디언》에 연재되었고, 혁명연합의 Red Papers 7에 수록된 니콜라우스의 기사, “How Capitalism Has Been Restored in the Soviet Union and What This Means for the World Struggle”을 보라. 반면 마오는 니콜라우스가 당시에는 구할 수 없었던 문헌에서 이 정책에 대해 호의적으로 논평했었다. 각주 40번에 언급한 마오의 스탈린 비판을 보라.

달리 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가 모든 경쟁자에 대항할 과학적인 출발점을 공산당에 제공하기는 했지만, 공산당의 전위적 역할은 여전히 **획득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문화혁명기 마오의 입장을 보면, 마르크스주의(또는, 당시 표현으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우월성은 더는 증명되거나 획득되는 것이 아니었고, 그저 **일방적으로 선언된** 것이었다. 공산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을 때, 전위의 역할은 최고의 마르크스-레닌주의자인 마오 그 자신에게 돌아갔다.

이와 비슷하게도, 1950년대 중반, 마오가 제시한 계급적 이해 개념은 프롤레타리아와 그 동맹자들 안에 존재하는 내부적 모순을 인식했다. 그러나 문화혁명기에 이르면, 이처럼 복잡성에 입각한 개념은 단일하고, 일관성과 같은 [계급적] 이해 개념으로 (이른바 ‘프롤레타리아적 노선’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프롤레타리아 내에서 단기적인 이해관계와 장기적인 이해관계 사이의 모순이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 내의 모순, 지역적 차이, 성적 차이, 젠더 차이, 종족적 차이 등등에 따른 모순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마오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자, 1958년 이전까지의 “좋은” 마오와 그 이후의 “나쁜” 마오라는 중국공산당의 공식 입장을 거부하기 위한 핵심이 무엇보다도 마오가 당과 전위 개념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sup>52</sup> 마오가 그의 정치활동 내내, 전

52 중국공산당이 제시한 “좋은 마오-나쁜 마오”라는 이분법은 내적으로 일관성이 없다. 그것은 마오가 더 나쁜 방향으로 선회하는 시점을 1957년으로 잡고, 마오의 핵심 오류 중 대부분이 ‘혁명을 계속한다(계속혁명)’는 그의 개념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보지만, 사실 그 개념은 1957년 후, [꽤 시간이 지난 다음까지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주의에 대해 모순적 관점을 유지했고, 전위의 지도력을 대중의 행동주의와 대비했다는 사실은 별로 놀랍지 않다. 마오는 비록 전위의 편에서 경향이 있었지만, 종종 당이 인민주의적(populist) 압력을 받게 했고, 이는 1950년대 중반, (비당원이 당원을 비판할 수 있는) 개방적인 정풍운동에서 시작하여, “백화”(百花)운동까지, 궁극적으로 그가 공산당에 대해 향해 촉발한 문화혁명의 “대중민주주의”까지 이르렀다.<sup>53</sup> 이런 모순적인 입장은 한 개인[마오]의 궁극적인 권위에 의존하여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문화혁명의 관념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sup>54</sup>

이런 환원주의의 대부분이 상황적 요인과 타협이 낳은 결과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마오와 마오주의적 문제설정이 이런 실천을 용인

53 예를 들어 1945년 초, 류사오치와 천사오위를 포함한 당내 일부 인사는 노동자운동, 여성운동, 청년운동을 하나의 공산당 내로 모두 통합하지 않고, [즉 당기구화하지 말고 당과] 분리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나아가] 1962년, 류사오치는 “당원들로 구성되고 당 내부에 존재하는 공개적인 반대파”를 요구했는데, Lowell Dittmer, *Liu Shao-ch'i and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pp. 24, 223을 보라. 하지만 마오의 지도 아래서 공산당은 더욱 전통적인 레닌주의적 전위개념을 계속 고수했다. 비슷하게, 문화혁명기 마오는 상하이 인민공사(코뮌)라는 “극좌적” 개념을 거부했는데, 그 개념에서는 당이 존재할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Li Xun의 “Gongren Zaofanpa”에는 매우 도전적인 반론이 담겨있는데, 문화혁명기에 조반파가 상하이를 장악한 후, 그 지도부는 노동자계급의 전위가 아니라 노동자계급 그 자체였다는 주장이 사실상 깔려있다. 그녀는 이 노동자 조반파 세력이 그들의 승리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는 데 실패했고, 그들의 실천이 근거로 삼았던 마오 사상에 있는 반(反)지식인적, 반(反)현대적 요소가 이런 실패를 낳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로부터 또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는데, 즉 상하이의 노동자계급이 그들의 “전위”가 실패한 이후 그들의 운명을 그들 손으로 스스로 결정하려고 했을 때, 이 역시 비참하게 실패했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은 어떻게 해야 실현되느냐는 질문을 제기했다는 결론 말이다.

54 영은 “Class Struggle”, p. 67에서 ‘대민주’는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대중을 마오쩌둥 사상으로 서서히 물들이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설사 대중이 마오 사상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했다는 것은 명백하다.<sup>55</sup> 게다가, 큰 재앙을 낳았던 마오주의 내의 환원주의적 요소와 실천은 마오주의적 문제들 내에 무단혁명 개념이 등장하면서 사회주의 생산양식론을 거부한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진단은 마오에 대한 공식적인 비판과 얼마간 일치한다.) 문화혁명의 재앙적인 결과로, 중국 지도부의 대부분은 스탈린적 문제들로 되돌아갔다. 지도부와 지식인 중 일부는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했다. 마오의 불완전한 문제들, 즉 사회주의 과도기에 관해 비판적인 질문을 실제로 제기했으나, 그에 답할 수는 없었던 문제들을 완성할 수 있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sup>56</sup>

### 3) 생산관계의 역할

위에서 언급했듯, 마오주의적 문제들에서 정치경제학의 연구대상은 생산관계다. 이런 접근은 생산력을 대가로 생산관계를 지나치게 강조한

55 예를 들어 Dittmer, *Liu Shao-ch'i*, pp. 322ff에 따르면, [문화혁명기 주자파에 대한 공격이] 류샤오치 개인에 집중되었는데, 이는 문화혁명 지도부가 수용한 타협이었다. 그러나 조반과 홍위병은 이런 타협에 반대했는데, 그들은 비판 대상을 더 광범위하게 유지하기를 원했다. Dittmer의 주장에 따르면, 문화혁명 지도부는 비판의 초점을 넓히기보다 류샤오치에 집중함으로써, 당과 인민해방군 내 중간집단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고, 더 광범위한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지속한 홍위병을 불법화함으로써 홍위병에 대한 통제를 일원화할 수 있었다.

56 여기서 한 가지 잠재적 예외는 다음과 같은 책이다. Lin Gang, *Bingcun yu jingzhengzhong de xietiao fazhan-Gongyouzhiweizhu de duozhong jingjichengfengbingcun (Coordinated Development in the Midst of Coexistence and Competition-The Coexistence of Various Types of Economic Elements with Public Ownership as the Main System)* (Xian: Shaanxi Renmin chubanshe, 1991). 이 책은 중국의 개혁에 따라 제도화된 여러 경제적 실천이 담고 있는 자본주의적 성격을 적절히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적절히 개입해야만 부르주아의 재출현과 자본주의의 부활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는 비판을 종종 받았다. 그러나 이런 비판을 다루기 전에, 제기되는 경우는 더 적지만, 아마도 더 날카로운 비판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즉 마오주의적 문제들은 정치경제학을 연구할 때 상품의 역할 대신에 생산 관계, 특히 소유제도에 초점을 맞춘 결과,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레글러는 이를 논증하면서, 마오 등등이 마르크스가 상품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을 무시했고, [상품 문제와] 분리된 채로 소유와 분배 문제를 강조하는 것을 더 선호했다고 주장한다.<sup>57</sup> 마오주의적 문제들은 상품의 이중성이나, 노동력이 상품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일관성을 잃고, 이는 가치법칙을 이해할 수 없는 무능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무능은 심각하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물이란, 사회주의 “생산양식”이라는 스탈린적 개념을 거부한 부단혁명 이론과 결합한, “궁극적으로는 반동적인” 뒤죽박죽이었다.

이러한 논증의 연장에서, 레글러는 마오가 상품생산을 확대할 필요성을 오해했다는 점도 검토한다. 마오는 상품생산의 확대가 [생산력을 발전시킴으로써] 생산과정의 진정한 변형, 즉 분업의 제거와 공산주의의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한다.<sup>58</sup> 상품교환에 관한 마오의 입장은 사실 양가적이었다. 한편으로, 마오는 상품생산 확대를 지지했지만, 대체로는 도농 간 교환을 촉진하고, 그럼으로써 노농동맹을 강화

57 Reglar, “Mao as Political-Economist”.

58 또한, 이와 관련된 맥락에서 레글러는 영의 비판을 되풀이하는데, 즉 마오주의적 문제들은 계급투쟁을 모든 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계급투쟁의 개념적 유용성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하고, 축적을 증대하기 위해서였다.<sup>59</sup> 다른 한편, 문화혁명기와 그 이후에, 경제정책은 상품생산의 발전을 상당히 늦췄고, 그 결과 점점 더 자급자족적이고 가부장적인 체계가 나타났다. 또한 레굴리는 두 가지 소유제도[국가소유와 집단소유]의 존재가 사회주의 하에서 상품생산이 이뤄지는 기초라는 개념을 비판하며, 그와 동시에, 임금소득 부문[국유부문을] 확대하고 그것에 이론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려는 노력도 비판하는데, 임금과 상품교환이 공산주의와 양립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sup>60</sup>

그러나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해야 한다. 먼저 개인 마오와, 마오 아래서 번창했던 세력이 발전시킨 마오주의적 문제들의 관계를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오는 두 가지 소유 제도의 존재가 상품생산의 기초라는 개념을 고수했지만,<sup>61</sup> 이 문제들을 활용하고 발전시킨 다른 마오주의자들은 바로 그곳에서 [다른 식으로] 주장했다. 즉 상품생산의 기초이자 자본주의의 부활 가능성의 기초는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보유하며,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지닌 상이한 기업들의 존재다. 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상품생산자” 또는 “서로 분리된 자본”이 존

59 《만세》(1967) pp. 121-22에 수록된 “Comments on Stalin's Reply to Comrades A. V. Sanina and V. G. Venzher”. 그리고 “Criticism of Stalin's 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만세》(1969), p. 250과 《만세》(1967), pp. 160, 각주 11번, 163, 각주 23번, 165, 각주 28번을 보라. 이것은 Roberts가 번역한 *Critique of Soviet Economics*에 실려 있다. 또한 MacFarquhar et al. (eds.), *Secret Speeches*, pp. 455 이하, pp. 465 이하에 수록된 “Speeches at Zhengzhou (7 and 11 November 1958)”을 보라. 위에서 인용한 연설에서 마오는 도시와 농촌의 교환이, 생계수단[소비재]을 구하기 위해 생산수단[생산재]을 교환하는 것과 사실상 동의어라고 말한다.

60 이러한 두 가지 소유체계는 첫째, 집단소유로, 협동조합에 속한 농민은 그들의 노동에 대한 배당을 받는다. 둘째, 전 인민의 소유[국가소유]로, 여기서 노동자는 임금을 받는다.

61 각주 40번에 인용한 마오의 스탈린 비판과 MacFarquhar et al. (eds.), *Secret Speeches*, p. 488에 수록된 마오의 “Speech at Wuchang”(21 November 1958)을 보라.

재하는 곳으로 가능하다. (바로 이런 인식이 정확히도 레글러의 틀이다.)<sup>62</sup>

임금소득부문의 확장과 특권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마오주의적 문제들에 관한 최신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것이다. (a) 화폐 기반 경제부문의 확대에 따른, 임금소득부문의 점진적 확대는 공산주의를 향한 이행에 필요한 바로 그 상품생산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b) 생산단위 내에서 노동관계와 분업을 바꾸려는 다양한 실험은 공산주의의 전제조건이 되는 방식으로 생산과정의 변형을 시도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정책들을 해석하고 마오주의적 문제들을 이행한 결과를 검토하면, 생산과정의 의미 있는 변혁이 전혀 없었다고 시사한다. 즉 노동력은 상품으로 남아있었고, (단순한 국유화 또는 국가통제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생산수단의 사회적 통제는 결코 도입된 적이 없었으며, 따라서 공산주의를 향한 진보는 우연이 아니라면, 최소에 머물렀다.

레글러에게 최후의 일격은 마오가 1960년대 초반, 즉 사회주의 생산양식 개념과 단절하기 전에, 생산수단을 농민에게 판매하는 것을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마오는 토지와 소규모 농기구는 인민공사가 소유했기 때문에, 트랙터와 같은 농업 생산수단도 역시 인

62 수정주의를 비판하고 스탈린의 오류가 남긴 강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장춘차오의 지도를 받아 쓰인 상하이 학파의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5번째 원고가 바로 이런 입장을 취한다. Christensen and Delman, "Shanghai School", pp. 14-15를 보라. [번역: 《계간 사회진보연대》 2023년 여름호.] 또한 Kang Li, "Bourgeoisie in the Socialist Period"도 보라. 흥미롭게도, Bill Brugger (ed.), *Chinese Marxism in Flux, 1978-1984* (Armonk, N.Y.: M. E. Sharpe, 1985), pp. 193-203에 수록된 "The Law of Value Debate"에서 레글러는 중국의 우파 비평가 쑨예팡(Sun YeFang)과 프랑스의 마오주의 정치경제학자 샤를 베틀렘이 각각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 끝에 있으나, 둘 다 이런 비판적 결론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분명히도 베틀렘은 위에 인용된 저작[상하이 학파의 교과서]을 알지 못했다. 베틀렘이 여러 차례 중국을 여행하고 경제학자들과 토론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처럼 개념 일치가 존재하는 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민공사가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생산을 늘리고, 과도한 중앙집중화를 줄이며, 노농동맹을 건설하기 위한 조건을 확립할 것이다.<sup>63</sup> 다른 한편으로 이 시기 [1960년대 초반] 마오주의적 문제들은 [상품생산에 관해] 대체로 스탈린적 마르크스주의로부터 이어진 입장을 유지했다. 즉 상품생산을 생계수단[소비재]으로 제한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과정 전반이 (완전히 축출되지는 않았지만) 장애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오가 “사회주의적 상품”이 자본주의적 상품과 다르다고 보고, 상품생산이 자본주의로 회귀를 이끈다는 개념을 비웃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sup>64</sup>

그러나 사회주의적 생산양식 개념과 단절한 이후, 마오와 그의 동맹자들은 자본주의적 상품생산과 사회주의적 상품생산 사이의 차이를 최소로 보고, 상품생산을 포함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공산주의의 발전에 극도로 위협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시작했

63 MacFarquhar et al. (eds.), *Secret Speeches*, pp. 443-517에 수록된 “Speeches at Zhengzhou and Wuchang”. 이 연설들은 레글러의 논문이 출간된 이후에 공개됐다. 이 연설에서 마오는 위에서 인용한 것처럼, 생산수단을 농민에게 판매하는 이유를 강조했고, 소련 정치경제학 교과서 3권이 상품생산 분야를 생산수단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넌지시 말했다. 그런데 마오는 트랙터의 잠재적인 소유권과 인민공사의 토지소유권을 비교함으로써, 제한적인 소유권의 유형을 말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 즉 인민공사가 트랙터를 사용하고 배치할 권리를 가질 수는 있으나, 트랙터를 판매할 수는 없는 [제한적 소유권 말이다]. 농촌 토지소유권의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 관한 훌륭한 분석으로는 다음을 보라. Mark Selden, *Political Economy of Chinese Socialism* (Armonk, N.Y.: M. E. Sharpe, 1988), chap. 7.

64 MacFarquhar et al. (eds.), *Secret Speeches*에 수록된 “Speech at Wuchang (10 November 1958)”, 특히 pp. 472-78를 참조하라.

다.<sup>65</sup> 사실 마오는 생산수단을 포함한 상품교환에 관한 논의를 합법화 함으로써 새로운 기반을 열었지만, 그가 자신의 행동에 담겨 있는 모든 이론적 의미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문서에서 그는 결코 이 주제로 돌아오지 않지만, 마오주의적 문제들 내에서 작업한 다른 논자들은 이 주제를 계속해서 탐구했다. 따라서, 이 핵심 주제에 관해, 마오의 개인적 입장과 마오주의적 문제들의 입장은 달랐고, 이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사회의 현상으로서 마오 사상을 평가할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요컨대, 레글러와 다른 논자들은 마오주의적 문제들의 이론적 비밀관성과 관련해 여러 유효한 비판을 수행했는데, 그러한 비밀관성은 마오주의적 문제들이 자신이 비판했던 정책과 실천을 대체하는 일관성 있는 일련의 정책과 실천을 개발하는 데 무능을 보이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이런 비판들의 상당 부분이 정당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마오주의적 문제들이 다뤘던 주제의 중요성을 무효화하지는 않을 뿐더러, 이론적, 실천적으로 더 만족스러운 대안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그것이 마르크스주의적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간에) 함의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마오주의적 문제들에 존재하는 (비밀관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완전성에 기여한 또 다른 핵심적 요인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다.

바로 이런 맥락 안에서야 마오주의적 문제들이 생산관계를 지나치

65 예를 들어 Christensen and Delman, "Shanghai School" pp.13ff를 보라. 이 글에서 저자들은 Peking Review XVIII, 9 (28 February 1975)에 번역된 "Mao's Latest Instructions on the Question of Theory"부터 시작하여, "Shanghai School"에서 이러한 경향의 발전을 추적한다.

게 강조했다. 비판을 가장 풍부하게 검토할 수 있다. 그런 비판을 받게 되는 입장은 “주석”에 가장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세계사를 보면, 우리는 부르주아가 산업혁명 이후가 아니라 이전에 혁명을 일으켜 그들의 국가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르주아는 상부구조에서 변화를 일으켰고, 국가장치를 장악했는데, 그 후 그들은 선전 활동을 수행하고 힘을 얻었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생산관계의 변화를 대대적으로 밀고 나갔다. 생산관계가 그들이 만족할 만큼 정리되고, 매끄럽게 운영되자, 이는 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길을 닦았다. 물론 생산관계의 혁명은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에 의해 유발되지만, 생산력의 급속한 발전은 언제나 생산관계의 변화 이후에 일어난다.<sup>66</sup>

이런 의견에서 도구주의적 요소를 제쳐둔다면, 이 패러다임은 위에서 간단히 설명했던 것처럼, 마르크스에 관한 비(非)경제주의적 해석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한 비경제주의는 『임금, 노동과 자본』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자본은 사회적 생산관계이기도 하다. **자본은 부르주아적 생산관계다...** 자본을 구성하는 생계수단, 노동도구, 원료는 특정한 사회적 조건에서, 특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산되고 축적되지 않는가?

66 “주석” 15장을 보라. 또한 1장, 4장, 28장을 보라. 비슷하게 “인민 내부의 모순을 올바르게 다루는 문제에 대하여”에서 나오는 “우리의 기본적인 임무는 생산력을 자유롭게 하는 것에서, 새로운 생산관계라는 환경에서 생산력을 보호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Zhang Chunqiao, “All Round Dictatorship”, p. 11도 참조하라.

새로운 생산에 기여하도록 생산물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이러한 특정한 사회의 특징이 아닌가?<sup>67</sup>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마오주의적 문제들이 지닌 입장을 가장 명료하게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요약한 것 중 하나는 마오나 그의 동료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 샤를 베틀렘이 제시한 것이다.

새로운 생산관계가 등장하자마자, 그것은 역사적으로 주어진 생산력에 영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생산력을 **변형**하고, 생산력에 **특정한 구조**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영향이다. 이런 식으로 변형된 생산력이 새로운 생산양식의 **특유한** 생산력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기계제 공업 이전에 형태를 갖췄다. 기계적 공업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지배 하에서 발전하고, 독특하게 “자본주의적인” 생산양식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는 역사적으로 주어진 생산력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렇게 생산력이 특정하게 변형됨으로써만, 독특하게 사회주의적인 생산양식(sic)이 구성될 수 있다.<sup>68</sup>

다시 말해서, 생산관계는 기술과 생산력이 발전하는 방식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의 통제를 받으면서 **새롭게 발전했고 또 발전**

67 Karl Marx and Frederick Engels, *Selected Works in Two Volumes*, I, p. 90. 강조는 원문에서.

68 Charles Bettelheim, *Economic Calculation and Forms of Property*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5), pp. 79ff. 강조는 원문에서.

하는 중에 있던 강력한 생산력이 사회적 생산과정을 변형시키는 방식을 분석했다. 반면 마오는 이미 존재하는 생산력을 영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데 관심이 있었다. 민족 부르주아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기능하고, 세계의 지배적인 경제적, 군사적 강대국들의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적대에 직면한 사회에서 말이다.

생산력은 추상적이거나 “중립적인” 상황에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특정한 사회구성체에서 발전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어떤 생산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선택을 내려야만 했다. 따라서 더욱 현대적인 상황에, 특정한 조건에 맞도록 마르크스주의를 개조하는 학습과정이 필요했다.<sup>69</sup> 마오의 최종 결론은 이렇다. 정치적 차원이나 (정치의 영향을 매우 직접적으로 받는) 생산관계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면 사회주의 프로젝트에 (치명적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sup>70</sup>

따라서 이 주제는 사회주의의 본질 혹은 목표를 결정하는 것으로 압축된다. 나는 마오가 다음과 같은 딜릭(Dirlik)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사회적 관계의 경제적 기초를 이해하고자 할 때 그 목표는 사회적 관계를 경제조직의 하위에 두는 게 아니라, 민주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사회적 관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재조직하는 것이다.

69 마이스너는 “Marxism, Maoism, and Utopianism”과 “Deradicalization”에서 마오의 학습과정을 검토한다. 그렇지만 마이스너가 인용한 학습과정에서 마오는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뛰어 넘는 문제에 관해 서로 다르고 부정확한 결론들을 도출하며, 다양한 계급의 역할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끌어낸다.

70 마오는 정치가 “경제의 집중화된 표현”이며, 토대의 일부라고 간주했다는 나이트의 평가에 관해서는 위의 각주 14번을 보라.



기술(정보 등등)은 사회적으로 무해하고, 그 관리자들도 사회적으로 무해하다는 (당대 중국 지도부의) 강변은 새로운 권력관계를 뒷문으로 들어오게 하겠다는 약속일 따름이라는 설명이 오히려 더 그럴듯하다. 이 새로운 권력관계는 사회주의를 침식하고 “전문가-관리자 계급”의 출현을 장려할 것이다.<sup>71</sup>

이런 평가와 예측이 정확한 것일지 여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 4. 결론

마오와 마오주의적 정치경제학의 문제들과 그들의 사회주의 프로젝트를 평가할 때, 이 모든 것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인가? 한편으로, 소련이나 다른 공산당과 비교해 볼 때, 마오주의적 지도부는 중국의 산업화를 시도하면서, 공산주의와 연결되는 평등주의적 목표를 (적어도 경제 영역에서는) 달성하려고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엄격하게 노력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주의”의 취약점과 대면하고자 시도했는데 (레닌이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전위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발생한 취약점도 포함된다), 이러한 취약점을 정확히 꼬집어 내고 분석하고자 했다.

71 “Symposium on Marxism in China Today”, *BCAS* 20, 1 (January-March 1988), p. 22에 수록된 아리프 딜릭의 논평. 비슷한 관점으로는 Dirlik and Meisner (eds.), *Marxism and the Chinese Experience*, pp. 294-315에 수록된 Richard C. Kraus, “The Lament of Astrophysicist Fang Lizhi: China’s Intellectuals in a Global Context”와 Richard Levy, “Corruption, Economic Crime and Social Transformation Since the Reforms: The Debate in China”, *AJCA*, 33 (January 1995), pp. 1-25을 보라.

이런 노력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예리함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즉 그들은 당시까지 사회주의 정책이 왜 그 목표에 미치지 못했는지를 예리하게 짚어냈고, 이러한 결점을 제기하며 대중을 동원했으며, 이와 동시에, 공산주의 운동 내부에서 그들의 반대자들이 제시할 정책이나 그 정책의 결과도 예상했다.

그러나 이론적 틀을 완성하지 못한 무능은 적절한 지침도 제공하지 못한 채로 광범위한 전략적 선택의 길을 개방했다. 마오주의 세력은 강력한 경쟁세력의 압박을 받으면서, 그들의 문제들이 가지는 강점, 즉 사회적 인과성의 복잡성을 인식한다는 강점을 사실상 포기했고, 그에 따라 다른 모든 요인을 희생시키면서 계급투쟁을 절대화했고, 이는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기반을 잠식하는 재앙적 정책으로 이어졌다.

사회주의의 발전에 관해 통찰력 있는 질문을 개발할 수는 있었지만, 일관성 있는 대안이론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면, 마오주의적 문제들은 소용없는 게 아닐까? 이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계급투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계급투쟁이 사회의 모든 층에 존재하는 다른 요인들과 어떻게 교차하는지 설명하는 일관성 있는 정의가 필요하다. 마오주의적 문제들이 적어도 문화혁명 기간에는 사회의 모든 층에 존재하는 적대적 계급집단들의 위험성을 절대화하긴 했으나, 이런 집단들이 실존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달리 말해, [마오 사후] 개혁 지도부가 개발한 특정한 정책들 중 상당수는 이처럼 모순적인 집단들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집단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전시키는 [마오주의와는] 또 다른 문제들 내에서 잘 활용될지도 모른다. (문화혁명기에는 이

러한 모순적 집단을 포함하는 모든 실천을 그저 금지했다.)<sup>72</sup> 둘째, 마오주의적 문제들이 발전시킨 것보다 더욱 철두철미하게 레닌주의적 전위 개념을 재평가해야 한다. 전위 개념을 재평가해야만, 특히나 해방 후 시기의 전위 개념을 재평가해야만 (에리트레아 인민해방전선이 그랬듯이), 사회주의의 민주적 형태를 확립할 수 있고 (이때에는 어떤 전위 개념도 단지 일방적으로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획득되는 것이 될 것이다), 그저 생산수단의 국유화가 아니라 생산수단에 대한 진정한 공동 영유와 통제를 개발할 수 있다.<sup>73</sup> [셋째] 마지막으로 디릭의 “포스트 사회주의” 개념이 간결하게 강조하듯, 자본주의 세계질서가 (도구적인 방식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구조적인 방식으로 사회주의 건설 시도에 강제하는 한계를 더 진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sup>74</sup>

최종적으로, 지도자이자 혁명가로서 마오를 평가할 때, 그의 정책이 [낭운] 결과뿐만 아니라 그 정책의 기초가 되는 이론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론을 분석할 때, 그의 관점에 대한 단순화된 통념을

72 Lin Gang의 저서 *Coordinated Development in the Midst of Coexistence and Competition-The Coexistence of Various Types of Economic Elements with Public Ownership as the Main System*는 이러한 접근법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73 에리트레아 인민해방전선은(EPLF)는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 지침을 따르는 해방운동으로, 에티오피아 정부를 상대로 성공적인 해방투쟁을 이끌었다. 에리트레아 인민해방전선의 두 주요 지도자, 라마단 마하무드 노어와 이시아야스 아페웨르키는 1968년 중국에서 훈련받았고, 에리트레아에 돌아온 후 당을 건설했다. 몇 번의 분열 후, 그들은 결국 에리트레아 인민해방전선을 결성했다. 해방 3년 전인 1988년, 인민해방전선은 전위주의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기반을 확장하고, 에리트레아 인민과 정치권력 둘 모두와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였다. 이는 1991년 해방 후 첫 번째 의회에서 에리트레아 인민해방전선이 자신 해산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국가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국가의 동원자 역할을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Against All Odds: A Chronicle of the Eritrean Revolution* (Lawrenceville, N.J.: Red Sea Press, 1993)의 저자, Dan Connell과의 인터뷰.

74 Dirlik, "Post-Socialism".

거부해야만 하며, 마오와, 그가 도움을 주고, 지원하고, 조직한 사회세력이 의미 있는 사회적 개입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개입이 지닌 한계를 얼마나 정확히 인식했는지, 이러한 개입을 실행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을 얼마나 뚜렷하게 정식화할 수 있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복합적 평가의 여러 측면에 [독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확실히 가능하지만, 나는 내가 제시한 분석이 마오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이해하기 위해서 마오의 마르크스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믿는다. ●